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피아노 초급 교재 비교 분석 연구
- 만 7-9세를 위한 국내 교재를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박 연 지

피아노 초급 교재 비교 분석 연구
- 만 7-9세를 위한 국내 교재를 중심으로 -

김 지 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박 연 지

인 준 서

박연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음악은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인 동시에 사회적 소통물이며, 나아가 인간 가치를 드높이는 예술품이다.”¹⁾ 음악교육은 전인 교육으로 여겨지며, 교육으로서 가장 먼저 선택되는 악기는 피아노이다. 피아노는 선율과 화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며, 다른 악기에 비해 음역이 넓고, 모든 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악기이자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다. 초급 학습자에게 피아노 교육은 두뇌 자극과 적절한 신체의 사용, 감수성, 예술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혼자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에게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 피아노 교사의 적절한 교재의 선택은 학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학생의 효율적 지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초급 교재를 비교, 분석해 특징을 살펴보고 교사의 효율적인 교재 선택을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재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초급 단계 교재들 중 일신서적출판사의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삼호뮤직의 『포인트 바이엘』, 음악세계의 『동그라미 바이엘』, 세광음악출판사의 『바이엘 하늘 자전거』, 세광데이타테크의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태림출판사의 『I LOVE 바이엘』을 선정했다. 교재의 분석은 초급 1~2년 과정에서 배워야 할 테크닉, 음정, 조성, 박자, 음가, 나타냄 말 및 지시어로 항목을 나누고 장, 단점과 특징을 정리 하였다. 분석 결과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은 대부분의 연습곡마다 주석이 달려있었고, 주석의 내용은 연주 방법이나 기초 이론이

1)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2014), p.170.

적혀있어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각 교재마다 수록된 곡이 많고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었다. 『포인트 바이엘』은 교재의 이름대로 ‘포인트’라는 주석을 통해 연주에 도움을 주지만 학습 난이도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 쉬운 난이도의 곡들로 수록되어있다. 『동그라미 바이엘』은 초급 과정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탄탄하게 구성 되어있으나 연습곡의 난이도가 높고 각 권의 수록곡이 많다. 『바이엘 하늘 자전거』는 어린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삽화와 그림을 구성해 놓았고 이론과 실용반주 부록 교재를 수록해 놓아 학습에 도움을 주지만 수록곡이 많아 진도가 늦어질 수 있다.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은 어린 초급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수록했으며 주석을 통해 음악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연습곡의 제목과 가사에 이론적 개념을 써 놓았기 때문에 교재를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기초 이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 있다. 『I LOVE 바이엘』은 페달이나 글리산도, 여러 음역대의 사용, 박수 치기, 노래하기 등의 음악적 활동을 교재에 수록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찍부터 많은 내용의 기초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각 교재들은 모두 초급 단계에서 배워야 할 과정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 되었고, 교재 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설정한 학습 방향에 따라 교재가 선택 되어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의의와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2
3. 연구의 범위	3
II. 이론적 배경	5
1. 음악교육의 필요성	5
2.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	6
3. 교사의 역할	9
4. 피아노 교재의 발달	11
5. 교재 분석 기준	12
III. 피아노 초급교재 분석	19
1. 분석 기준에 따른 교재 분석	19
1)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19
2) 『포인트 바이엘』	28
3) 『동그라미 바이엘』	36
4) 『바이엘 하늘자전거』	44
5)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56
6) 『I LOVE 바이엘』	66

2. 종합적 고찰	76
Ⅲ.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권별 분석	27
<표 2> 『포인트 바이엘』 권별 분석	35
<표 3> 『동그라미 바이엘』 권별 분석	43
<표 4> 『바이엘 하늘 자전거』 권별 분석	55
<표 5>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권별 분석	65
<표 6> 『I LOVE 바이엘』 권별 분석	75

악 보 목 차

<악보 1> 악보 하단에 제시한 음악 이론	20
<악보 2> 건반의 위치 확인, 2, 3, 4번 손가락의 진행	21
<악보 4> 이음줄	22
<악보 5>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넘기기	23
<악보 6> 손가락 좁히기	23
<악보 7> 다장조 주요 3화음과 팔립7화음	24
<악보 8> 리듬읽기	25
<악보 9> 작게 쓰여 있는 연습곡의 제목	28
<악보 10> 교재 하단에 제시된 ‘포인트’ 설명	28
<악보 11> 흰 건반 무보표 연습에서 등장한 높은음자리표, 음표의 머리에 쓰여 있는 계이름	30
<악보 12> 이음줄 테크닉	31
<악보 13>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좁히기	31
<악보 14>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32
<악보 15> 리듬읽기	33
<악보 16> 한국어로 제시된 빠르기말	37
<악보 17> 무보표 왼손 2, 3, 4번 손가락 연습	37
<악보 18> 무보표 흰 건반 다섯 손가락 연습, 음표 머리에 제시된 계이름	38
<악보 19> 이음줄의 설명과 연습곡	38
<악보 20> 레가토의 설명과 연습곡	39
<악보 21> 손가락 넘어가기	39

<악보 22> 손가락 좁히기	39
<악보 23> 여러 가지 당김음	42
<악보 24> 예비박	45
<악보 25> 듀엣연주	46
<악보 26> 연습곡에 제시한 이론	46
<악보 27> 사랑해요	47
<악보 28> 무보표 검은 건반 연습	48
<악보 29> 무보표 흰 건반 연습	49
<악보 30> 오른손 1번-5번의 바른 손 모양 테크닉 연습	50
<악보 31> 이음줄	51
<악보 32> 손가락 넘어가기	51
<악보 33> 손가락 넓히기	52
<악보 34>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52
<악보 35> C, F, G코드	53
<악보 36> 저자의 자작곡	56
<악보 37> 한국어로 제시된 빠르기말	58
<악보 38> 무보표 리듬읽기	59
<악보 39> 레가토와 스타카토	60
<악보 40> 손가락 넘기기	60
<악보 41>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61
<악보 42> 페달 사용	61
<악보 43> 다장조 주요 3화음	62
<악보 44> 악보에 제시된 코드	63
<악보 45> 클리산도와 페달	67
<악보 46> 연습곡에 제시된 이론 학습	67

<악보 47> 무보표 검은 건반 연습	69
<악보 48> 무보표 흰 건반 연습	69
<악보 49> 레가토 연주	70
<악보 50> 두 음, 세 음 슬러	70
<악보 51> 손가락 벌리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71
<악보 52> 손가락 넘기기와 손가락 통과하기 연습	71
<악보 53> 다장조의 주요3화음	72
<악보 54> 리듬 읽기	73
<악보 55> 부점 리듬	73

그 립 목 차

<그림 1> 목차에 나타난 이론적 내용	20
<그림 2> 리듬 익히기 방법	26
<그림 3> 세 그룹 검은 건반	29
<그림 4> 저작권 표시	36
<그림 5> 다장조 음계	40
<그림 6> 음가 읽기	41
<그림 7> 등장인물 소개	44
<그림 8> 연습량 체크	45
<그림 9> 두 그룹 검은건반 ‘헨젤’	48
<그림 10> 세 그룹 검은 건반 ‘그레텔’	48
<그림 11> 도의 자리	49
<그림 12> 4분음표 리듬 읽기	53
<그림 13> 페르마타	54
<그림 14> 시창	57
<그림 15> 청음	57
<그림 16> 리듬치기	64
<그림 17> 목차에 제시되는 기초 이론	66
<그림 18> 쇼팽의 손 연습	68
<그림 19> 레가토 페달	71

I. 서 론

1. 연구 의의와 목적

음악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인간의 감정, 경험 등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의하면 “음악 행위는 인간의 정서에 작용하여 심성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인격체와 협동하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협동적 시민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체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²⁾

음악의 기본이 되는 악기 중 하나인 피아노는 어린 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이다. 또한, 피아노는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나 성악가 등 모든 음악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이다. 음악에서 피아노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전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육 자체로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피아노 교육을 받음으로 감수성, 통찰력, 상상력을 개발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회는 학습자가 예술적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자기만족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³⁾

피아노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성격, 잠재력, 개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해 알맞은 학습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학습 방향에 도움을 주는 교재의 선택 또한 교사의 중요한 몫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교재들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순수

2)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p.54.

3)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7), p.24.

하게 국내에서 제작된 피아노 초급 교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2000년대에 와서 활발하게 출판되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교재는 전체적인 학습 과정이 아동의 감상적인 면, 인지적인 면, 연주 기교를 위한 기술적인 면 등의 많은 영역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습득된 개념을 연주를 통해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을 아동들에게 주어 음악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교재들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교사들에게는 효율적인 교재 선택에 도움이 되고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피아노 학습이 단계적으로 진행 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교사들의 효율적인 교재 선택을 돕고자 하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출판되고 있는 교재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피아노 교습과정 중 초급 과정의 만 7~9세의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악교육의 필요성,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 피아노 교재의 발달과 교사의 역할, 교재 분석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재의 선정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출판사별로 출간된 다양한 교재를 채택한다. 채택한 6가지 종류의 초급교재는 일신서적 출판사의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삼호뮤직의 『포인트 바이엘』, 음악세계

4) 주장아, “피아노 음악교육의 기초 교재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2004), p.15.

의 『동그라미 바이엘』, 세광음악출판사의 『바이엘 하늘 자전거』, 세광데이타테크의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태림 출판사의 『I LOVE 바이엘』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교재의 학습과정 전체를 분석범위로 삼고 교재의 구성과 특징, 무보표 손가락 연습과 접근방법에 따른 접근법을 알아보고, 각 권에서 제시되는 테크닉, 음정, 조성, 박자, 음가, 나타냄 말 및 지시어를 파악,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피아노 교습의 수준은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급은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유아 과정(Preschool Student), 초등 과정(Elementary-Age Student), 10대 과정(Late Beginner), 성인 과정(Adult Student)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유아 과정은 취학 전 아동으로 만 6세 이전에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을 말하며, 기초 과정은 초등학교 교육이 시작하는 만 6~8세 학생을 이른다. 10대 과정은 만 10세를 지나 늦게 피아노를 시작하는 아동을 지칭하며,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학생을 성인 과정이라 한다.”⁵⁾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 대상자는 초등 과정 학생이다. 유아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피아노 학습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연령인 만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로 설정하며, 영·유아 과정, 10대 과정, 그리고 성인 과정의 초급 교재는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교재는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의 수준이 발전하고

5) 김강희 외, 『피아노 교수법 개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2010), p.39.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교재가 아닌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되는 교재를 선택한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제작, 출판되고 총 4권 과정으로 구성된 교재로 한정하며 외국 수입 교재는 제외시킨다. 일신서적 출판사의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삼호뮤직 출판사의 『포인트 바이엘』, 음악세계의 『동그라미 바이엘』, 세광음악출판사의 『바이엘 하늘 자전거』, 세광데이터테크의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태림출판사의 『I LOVE 바이엘』의 학습 과정의 장, 단점과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의 필요성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음악은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 준다. TV, 드라마, 영화, 라디오, 전화 연결음, 학교, 백화점, 병원 등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다양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누구나 이런 음악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은 감정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고, 또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⁶⁾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음악교육의 윤리적 힘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동 교육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목적을 이성적 생활의 영위와 행복한 생활의 성취로 보면서, 이를 위한 자유 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정신적 정화에 의한 치료(카타르시스)로서 그리고 지적인 오락 및 휴식을 위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서 교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음악교육은 미적 감정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며, 동시의 아동의 도덕교육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하였다.”⁷⁾

또한, 음악은 개인으로부터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소통의 도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음악은 인간의 성격, 행동, 생각, 인격의 형성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때, 음악 교육은 전인적

6) 전현성, 『최신 유아 음악교육』, 서울: 태림출판사(1993), p.126.

7) 김종환,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2004), p.52-53.

발달의 인간교육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⁸⁾

그리고 음악을 배우는 것은, 작품에 감동하는 능력과 풍성한 감성을 지니는 중요한 일이다.⁹⁾ 이처럼 음악교육은 감성, 지성, 인성, 사회성 등에 도움이 되며 성장하면서 보다 나은 인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악기를 다룸으로써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흥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음악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노래를 부르거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손뼉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욕구이다.

특히, 피아노는 음악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명명할 정도로 모든 음악과 악기를 아우를 수 있는 완전한 악기이다.

“피아노 교육은 전문적인 피아니스트만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거나, 성악, 혹은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음악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⁰⁾

다른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1, 2년 동안의 피아노 학습은 매우 좋은 기초학습을 제공한다. 피아노라는 악기는 음계, 리듬, 선율, 화성 등

8)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p.52.

9) 이민희, “초급교재 비교분석연구: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피아노 어드벤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2011), p.6.

10) 최복희, “피아노 기초과정 지도를 위한 교재의 비교 분석 연구:Beyer과 Alfred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p.12.

음악 이론의 기초적 경험을 하게하기 때문이다.¹¹⁾

“피아노 교육이 주는 이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비록 모든 아동이 피아노를 전공하지는 않더라도 어린 시절에 길러진 음악적 감수성과 이해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¹²⁾

“음악이 어린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과정으로 인정되면서 근래의 피아노 교습은 어린이의 지능과 신체적 성장을 자극하여 보다 나은 인격형성을 지향하는 교육목표의 과제가 되었다.”¹³⁾

“아동기는 인격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능률적인 시기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간의 정신이나 정서 교육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음악을 포함한 예술 교육은 이를 가능케 한다.”¹⁴⁾

어린 초급학습자가 피아노를 배우며 얻어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노는 두뇌개발에 도움을 준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살펴보면 눈은 악보를 보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타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은 눈으로 악보를 보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음악적 기호들, 즉 음표, 쉼표, 손가락 번호, 악상, 음악적 표현, 지시 등을 종합해 인지하고 연관, 응용하여 손끝으로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개별적 배움 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이해하고 연결하며 구성하는 종합적인 능력의 성장을 돕는다.¹⁵⁾

둘째, 적절한 신체적 자극을 한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단순히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목, 위팔, 아래팔, 어깨, 상체, 호흡, 페달을 사용하는 발 등의 사용은 신체를 자극하는 요인들이다.

11)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p.23.

12)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서울: 학지사(2008), p.186.

13)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2009), p.81.

14) 이호선, “초급 피아노 교재의 연구: 피아노어드벤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2007), p.8.

15) 강선혜, “아동기 피아노 초급 교재 비교연구 및 사용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p.7.

셋째, 음악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만7~9세의 초급 학습자는 청각각이 일생 중 가장 절정인 시기로 이때 청각각을 자극하면 시창, 청음 등 음악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넷째, 연습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아동은 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 받고, 시도에 대해 칭찬받으면 근면성이 발달하게 된다.”¹⁶⁾ 초급 학습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 하면서 연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복 연습과 암보를 통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더불어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다섯째, 감성을 계발 시킬 수 있다. 피아노는 선율과 화성을 모두 연주 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연주함으로써 감성을 자극 시키고 음악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줄 수 있다.

이밖에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실성, 표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앙상블 연주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사회성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양손을 이용해야 하므로 두뇌 계발을 촉진하며,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신체 사용은 아동에게 크고 작은 근육 운동의 사용을 도와준다. 또한 피아노를 지도받는 것은 감수성과 통찰력, 그리고 상상력을 개발시키고 그에 따른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적응력도 길러나가는 좋은 기회의 포착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미적 감각을 기르고, 자기 표현과 자기만족에 대한 성취감을 드높일 수 있다.¹⁷⁾

그러므로 피아노 교육은 단순한 음악교육이 아닌 전인적 인격 교육이라 할 수 있다.

16)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p.33.

17) 이은주 외, 『피아노 지도와 교수이론』, 서울: 교육아카데미(2014), p.39.

3. 교사의 역할

만7~9세의 어린 학습자는 유아에서 아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활동이 왕성하며, 가족 구성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한 배움에 열성적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덕적 발달이 미숙하고, 열등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 저학년 학생은 비판이나 놀림에 민감하며 실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 시기의 학생이 가지게 되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적이므로 꾸중이나 비평을 할 때는 아동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잘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비결이다.¹⁸⁾

“피아노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지녀야 할 인격과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음악 전문가로서 연주, 작곡, 분석적인 기술과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적인 태도와 활동 및 실례를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¹⁹⁾

초급 단계의 피아노 교육은 피아노 전공을 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기보다 피아노 입문, 교양, 취미 정도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생이 음악을 얼마큼 즐기고 사랑하고 연주하는지 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학생이 진도를 얼마큼 나가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피아노 기초 교육을 충분히 받은 학생이라면 피아노 소리를 고르게 내며 음악성이 표현되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진도 위주의 피아노 교육은 좋은 연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는 이 딜레마에서 현명하게 교수법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피아노도 기초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음

18)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p.31.

19) 신지연, “피아노 초급 교재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2004), p.5.

악적 재능이 9세 이전에 길러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초급단계를 가르치는 피아노 교사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처음 레슨 기간 동안 학생은 독보, 테크닉의 기초, 기본적인 이론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 시작 할 때의 좋은 습관은 피아노를 치는 동안 내내 견고한 바탕이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확고한 개념파악과 함께 좋은 연주 습관을 몸에 지니도록 하는 초기단계의 레슨은 대단히 중요하다.”²¹⁾

초급 단계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초 음악 이론, 테크닉은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음악지도는 학생들에 의해서 진정한 음악적 성취를 이룰 때에만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이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며 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음악지도라고 할 수 있다.²²⁾

어린 학습자들의 초급단계 시기는 교사에 의해 피아노 교육이 계속 될 수도 있고, 교육을 포기하거나 의지를 잃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습자가 연습을 충실히 하거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갈 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심리, 성격, 학습상태, 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학생에게 테크닉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음악가의 이야기, 역사, 문화 등 음악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놀이과정, 플래시카드 사용 등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해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있어 교사의 성품과 자질,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가

20) 유은석,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p.402.

21) 범영숙,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서울: 삼호뮤직(2003), p.37.

22) 찰스 레온하드, 로버트 W.하우스,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3), p.280.

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교재의 선정은 아동의 기호에 맞추어 자발적인 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고, 교재에 대한 아동의 흥미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교재가 아동의 흥미, 의욕과 결부되어야만 음악적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이 시기에 교사의 성공적인 역할은 피아노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음악을 배우고, 충분히 즐기고 사랑하는 음악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사의 적절한 교재 선택은 피아노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4. 피아노 교재의 발달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은 1800년대 후반 기독교를 비롯한 서양문화가 유입되면서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에서 풍금을 사용해서 찬송가를 가르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 마땅한 피아노 교재가 없었던 시절에 독일에서 출간된 『바이엘(Beyer)』 교재가 1910-1945년 사이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처음으로 피아노 교재로 활용되었다.²⁴⁾

『바이엘』은 전체적으로 볼 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이 교본으로 학습 한다면 상당한 독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동안 피아노 초급 교재로 사용하던 바이엘 교재의 여러 단점이 발견 되었는데, 첫째, 높은음자리표 학습 후 낮은음자리 보표가 교재의 중간 뒷부분에 등장해 음자리표 낮은음자리 보표 학습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거나, 둘째, 레퍼토리의 구성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여 쉽게 싫증을 낼 우려가 있고, 셋째, 음악성을 키우기

23) 주정아, “피아노 음악교육의 기초교재 연구”, p.13.

24) 김강희, “초보피아노 교재의 어제와 오늘”, 『피아노 음악』, (1998), p.129.

보다는 테크닉 위주의 연습곡으로만 짜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이엘』을 변형한 교재와 외국의 다른 여러 교재들이 출판되었다. 1980년대 후반 『바이엘』 이외에 James Bastien의 『베스트 피아노 교본』, Wilbord Palmer의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David Carr Glover의 『글로버 피아노 교본』 등 많은 외국 교재가 도입 면서 교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1990년대 이후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국 교재들이 만들어지면서 유행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발터와 캐를 누나의 『영피아노 교본』, 영국에서 수입된 『어스본 피아노 교본』 등 이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된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은 많은 유행을 했다. 하지만 외국의 정서가 담긴 레퍼토리와 교재의 구성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계기 삼아 우리나라에서도 기초 교재를 집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집필하는 교재에 여러 접근법을 사용하고,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기존의 『바이엘』 교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바이엘 교재의 연습곡과 그의 곡을 변형해 수록한 여러 종류의 바이엘 교본과 바이엘 곡이 수록되지 않은 순수 국내 교재들이 출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²⁵⁾

5. 교재 분석 기준

“교재는 교사와 학생과 더불어 교육 활동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특히 교재는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개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교재는 교사에게 있어서 교수하는 내용인 동시에, 학생에게 있어서는 학습하는

25) 전해정, “피아노 기초교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교재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2009), p.7-8.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피아노 교재는 이들 자료 중에서 피아노 실기 학습 시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연습과정을 꾸며놓은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초보자를 교육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사는 각 교재가 제시하는 음악적 개념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교재 저자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각 교재가 강조하는 음악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교재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본 후에 학생의 특징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²⁷⁾

이를 위한 연구로 6가지 종류의 국내 교재를 선택했고 분석하기에 앞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재의 구성과 특징

어린 학습자에게 맞는 초급 교재의 형태는 컬러판인지, 학습자의 흥미를 끌 만한 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지, 악보는 보기 쉽게 되어있는지, 주석의 설명이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시킬만한지 확인한다.²⁸⁾ 또한, 연주곡은 지루하지 않은 레퍼토리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차례로 제시되는지 비약적으로 어려워지는지 살펴 봐야하고, 주석에서 이론 개념 설명 후에 연습곡에서 다루어지는지 확인해 본다.

2) 접근법

독보 지도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접근법에는 가온

26) 정민정,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기초교재 연구: 바이엘과 알프레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2006), p.8.

27) 김강희 외, 『피아노 교수법 개론』, p.50.

28)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역), 서울: 음악춘추사 (2008), p.43.

다 접근법(Middle C Approach), 다조성 접근법(Multi-Key Approach), 음정적 접근법(Intervallic Approach)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각 접근법의 단점들을 보완해 1980년대 이후 만든 수정·절충 접근법(Eclectic Approach)이 있다.

① 가온 다 접근법

가온 다 접근법은 1930년대 이후 많은 교재에서 사용 되었다. 가운데 도 위에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함께 올려놓고 익힌다.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2옥타브 내의 음을 연주하게 되며, 다장조의 곡을 주로 다루게 된다. 한정된 음의 사용은 건반상의 위치를 외우고 훈련하는 것이 쉽다. 또한, 다른 조로 넘어가기 전에 C조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면 청력과 손 모양의 안전성을 길러준다.²⁹⁾ 가온 다 접근법의 단점은 손가락 번호로 계이름을 읽게 되며, 좋은 손가락의 사용은 바깥에서 안으로(5번 손가락에서 1번 손가락으로 가는 움직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는 것은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 손가락 연습이다. 그리고 기준 음이 ‘가운데 도’ 한 음 밖에 제시되지 않아 연습곡이 지루할 수 있고, 양손 도를 사용하는 한정된 음역은 팔이 몸에 너무 붙어서 연주하게 되므로 좋은 연주 자세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② 다조성 접근법

1960년대에 그룹 레슨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연주는 물론 화음 넣기와 즉흥연주를 위해 사용되었다. 다조성 접근법은 건반과 손의 위치에 따라 음표, 코드, 조성을 배우도록 하는 방법이다.³⁰⁾ 다조성 접근법은 여러 자리에서 다섯 손가락의 패턴을 먼저 익히며 여러 조성에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위치에서 연

29) 조운수, 최윤경,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 서울: 뮤직필(2003), p19.

30) 김선진, “피아노교육의 초급교재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바이엘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2015), p.11.

습하기 때문에 팔과 어깨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기른다. 다조성 접근법의 단점은 다섯 손가락 패턴에만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손가락번호나 손 모양을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초급 단계에서의 화음연주나 변주는 다양한 음악적 상상력을 길러주고 여러 음색을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악보 읽기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화성 반주와 멜로디의 연습은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주와 멜로디 연주 패턴만 익히게 돼 다른 연주 패턴을 배우지 못한다.

③ 음정적 접근법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접근법으로, 보표 없이 음의 방향으로 읽는 방법으로 모든 음역대에서 연주가 가능하다. 이 독보법은 오선에서 음정을 읽는 것이 아니고 보표 없이 기준 음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위아래의 방향으로 읽도록 한다. 또한, 손가락 번호에 의존하지 않고 패턴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악보를 자세히 보게 되어 악보 읽기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고, 음정을 이용하여 화성을 읽는 것도 가능하다. 화성음정을 연주하는 것은 3화음을 읽고 연주하는 것의 준비단계이다.³¹⁾ 그리고 검은 건반에서 3번 손가락을 중심으로 두고 2, 3, 4번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모양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음정적 접근법은 많은 조성과 음역에서 연습하게 되므로 다양한 소리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은 독보를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큰보표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음정에 의한 악보 읽기를 하는 교재들은 민요나 잘 알려진 음악이 수록되지 않고 창작 음악이 많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음정을 이용해 화성을 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만 화성연주가 늦어지기도 한다.

31) 조운수, 최윤경,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 p.21.

④ 수정·절충 접근법

많은 교재들이 위 세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지만 1980년대 이후 이 접근법 대신 가온다 접근법, 다조성 접근법, 음정적 접근법들의 특징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³²⁾ 20세기 대부분의 교재들은 수정·절충 접근법을 사용한다.

3) 테크닉

“테크닉은 초기 음악학습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음악이 요구하는 소리를 가장 이상적인 음질과 음량으로 올바른 템포와 기교로 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배양일 것이다.”³³⁾

제임스 베스틴의 1-2년간의 음악계획에서 제시하는 테크닉 중 레가토는 두음, 세음, 또는 몇 마디에 걸쳐서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슬러, 프레이징,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핑거링, 페달링, 테누토, 악센트, 알베르티베이스 등 음악적 테크닉이 적절한 난이도에 따라 제시되었는지 비교해본다.³⁴⁾ 또한, 같은 음에서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넘기기, 손가락 좁히기 등 연주 시 쓰이는 테크닉들이 적당한 시점에서 소개되었는지 알아본다.

4) 음정, 조성

피아노에서 다루어지는 음정은 1도~8도이다. 한 음씩 연주되는 가락 음정과 두 음이 쌓여 연주되는 화성 음정이 언제 제시되었는지 살펴본다. 높은음자리, 낮은음자리에서 사용된 덧줄, 덧칸의 음역을 알아본다.

초급 단계에서는 조성이 다장조로 시작된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1-2년의 과정동안 배워야 할 조성은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가단조, 라장조 등이다.

32) 조운수, 최소영,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 p.22.

33) 신지연, 『피아노 초급 교재의 연구』, p.13.

34)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역), p.109, 126.

교재마다 각 조성의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조표를 사용한 조성의 제시보다 먼저 임시표의 사용을 통해 조성의 이해를 도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각 조성의 음계와 3화음, 딸림7화음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5) 박자표, 음가

박자(pulse)는 모든 음악에 규칙적으로 흐르는 맥박이다. 기초 과정에서 박자표는 4/4박자, 3/4박자, 2/4박자, 6/8박자, 3/8박자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박자표의 리듬치기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비교해 본다. 리듬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체 활동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리듬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신체적인 감각이 우선이며, 연주자가 연주할 때 박을 세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³⁵⁾

유명한 지휘자이며 연주자인 “한스 폰 뷔로(Hans von Bulow : 1830-1894)는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음악의 그 무엇보다도 리듬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리듬이란 박자 안에서 유동적인 질서인데, 우리 몸의 맥박과 비교될 수 있다. 리듬에는 음표와 쉼표가 포함되며, 음표는 길고 짧은 음의 길이를 정하지만 쉼표는 항상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³⁶⁾라고 했다.

초급 수준의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할 음가는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셋잇단음표, 부점리듬 및 이에 상응하는 모든 쉼표가 차례대로 제시되어야 한다.³⁷⁾ 각 교재마다 다양한 음표들이 적절한 난이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잘 나타났는지 알아본다.

35) 김강희 외, 『피아노 교수법 개론』, p.47.

36) 범영숙,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p.88.

37) 조운수, 최윤경,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 p.34.

6) 나타냄 말 및 지시어

초급 학습자가 음악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타냄 말, 지시어, 빠르기말, 셈여림 등의 이론적인 개념을 습득해야 한다. 초급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빠르기말은 Andante, Andantino, Moderato, Allegretto, Allegro 등 이고, 셈여림은 pp, p, mp, mf, f, ff, cresc., decresc. 등, 지시어로 도돌이표, 늘임표, rit., a tempo, Dacapo, Fine등이다. 이런 나타냄 말 및 지시어들이 교재에 수록된 곡마다 음악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Ⅲ. 피아노 초급교재 분석

1. 분석 기준에 따른 교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교재의 구성과 특징, 무보표 접근법과 독보 접근법, 테크닉, 음정, 조성, 박자, 음가, 나타냄 말 및 지시어에 근거하여 6 종류의 교재를 분석한다.

1)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① 교재 구성과 특징

일신서적 출판사의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은 프라임 피아노 교재를 새로 개정한 책으로 2010년 10월 1일 출간 됐다. 1권은 41곡, 2권은 40곡, 3권은 42곡, 4권은 39곡이 수록 되어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1, 2권의 이론 부교재인 ‘음악 노트’가 수록되어있다. 계이름, 음표, 쉼표, 쉼여림 기호 등을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반복해 풀면서 기초 이론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둘째, 동요, 외국민요, 캐롤,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 되어 있으나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셋째, 교재의 목차에는 각 권에서 배워야 할 이론적인 내용이 제목처럼 제시되어있어 어떤 연습곡을 배우는지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 눈에 알기 어렵다(그림 1 참조).

1. 음정 연습

3도 음정 연습	9
4도 음정 연습	11
셈여림표 - <i>p</i> · <i>f</i>	14
셈여림표 - <i>mp</i> · <i>mf</i>	16
5도 음정 연습	18

<그림 1> 목차에 나타난 이론적 내용 (2권 p.6)

넷째, 1권과 2권의 악보는 크게 그려져 있어서 보기가 편하다. 그러나 3권 부터는 연습곡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악보가 촘촘하고 작게 편집되어서 악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학습량이 더 많게 느껴진다.

다섯째, 교재의 상·하단에 제시된 음악 용어의 설명은 초급 학습자의 기초 음악 교육에 도움을 주지만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 집중해서 봐야 한다(악보 1 참조).

<악보 1> 악보 하단에 제시한 음악 이론 (1권 p.10)

원 손 으 로 인 사 하 고
카나 카나 카나 카나 카나 카나 카나 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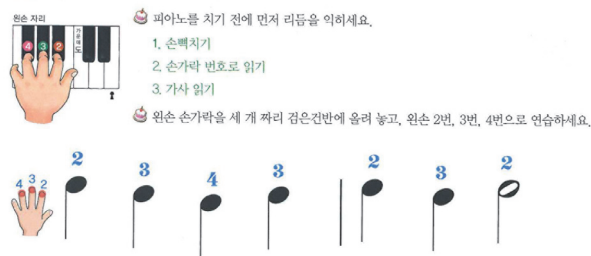
는 4분음표입니다. 리듬을 읽을 때는 '하-기'라고 읽습니다.

여섯째, 교재의 1, 2, 3권까지는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4권에서 많은 조성과 복잡한 리듬이 제시되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검은 건반 연습곡은 총 6곡이다. 교재에 건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연주해야 할 건반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교재의 검은 건반연습은 2, 3, 4번 손가락 순서로 진행한다(악보 2 참조). 이때 3번 손가락이 중심이 되는 손의 위치는 손모양의 균형을 이룬다.

<악보 2> 건반의 위치 확인, 2, 3, 4번 손가락의 진행 (1권 p.12)



흰건반 연습곡은 총 12곡으로 진행된다. 흰건반 연습에서 왼손 연습곡의 악보 앞머리에 낮은음자리표가 나오고 오른손 연습곡의 악보 앞머리에 높은음자리표가 나타난다(악보 3 참조).

<악보 3> 무보표 연습곡에 제시되는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 (1권 p.18, 19)



다른 교재들의 무보표 흰건반 연습곡에서는 음자리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흰건반 연습에서 음이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표 머리에 계이름을 적어놓았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 교재들의 경우는 음표 머리에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되어있지만 국내 교재에서는 음표 머리에 알파벳이 아닌 계이름을 써 놓았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다.

본 교재의 무보표 연습곡에서는 음정적 접근법이, 보표 연습곡에서는 수정, 절충 접근법(왼손 F clef F음, 오른손 G clef G음)이 사용되었다.

③ 테크닉

세바퀴 프라임 바이엘 1권에서 총 13곡의 오른손과 왼손 각각의 연습곡 후에 큰 보표가 제시되면서 양손 연주 연습곡이 등장한다.

2권에서는 7마디의 긴 프레이즈의 이음줄이 오른손에서 나타나는 반면 왼손은 연속되는 같은 음을 반주하게 하여 양손의 독립성을 기른다. ‘이음줄은 하나의 문장과 같습니다.’라고 이음줄의 개념을 설명한다(악보 4 참조).

<악보 4> 이음줄 (2권 p.4)

오른손의 긴 이음줄이 나타난 후에, 두음 슬러, 양손의 긴 레가토 주법이 나온다. 그리고 스타카토, 레가토와 스타카토를 경험 할 수 있고 붙임줄이 제시된다. 두 음 또는 세 음 슬러 에서의 down, up 또는 긴 프레이즈나 긴 레가토의 끝 음 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연주방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3권에서는 손가락 넓히기, 같은 음에서 손가락 번호 바꾸기, 손가락 넘기기, 손가락 좁히기 등의 손가락 연습을 취급한다(악보 5, 6 참조). 3권에서 악센트가 연습곡에서 취급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은 4권에서 나타난다.

<악보 5>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넘기기 (3권 p.39)



<악보 6> 손가락 좁히기 (3권 p.65)



4권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 짧은 꾸밈음, 스타카티시모가 등장하는데, 이때 꾸밈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어떠한 기초 이론이 연습곡에서 설명 없이 등장하거나 설명보다 먼저 연습곡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초 이론의 제시와 적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교재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음정, 조성

1권 연습곡에서는 1도, 2도, 3도, 5도 가락 음정이 나타나고, 4도 가락 음정은 2권에서 취급한다. 또한 2권에서는 2도, 3도, 4도, 5도 화성 음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옥타브도 등장한다. 최초로 제시되는 덧 줄은 낮은음자리표 윗덧줄(‘레’ 음)이지만 덧줄에 대한 설명은 3권 후반부에서 나타난다. 3권에서는 6도의 가락 음정, 화성 음정이 나타나고, 4권에서는 7도, 8도 가락음정이 제시된다. 보편적으로 1권에서는 1도부터 5도 음정까지를 포함하나 세바퀴 프라임 바이엘에서는 4도 음정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교재의 각 단계에 따른 음정의 학습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본 교재의 조성은 다장조 연습곡들로 시작하고 2권에서 사장조 5음 음계가, 3권에서 라장조 5음 음계, 바장조 5음 음계가 올림표, 내림표와 함께 나타난다. 3권에서 처음으로 다장조의 1도 화음(도, 미, 솔)이 등장하고 4권에서는 처음으로 다장조 온음계로 이루어진 연습곡이 나온 후 다장조의 주요 3화음과 딸림7화음이 나타난다(악보 7 참조).

<악보 7> 다장조 주요 3화음과 딸림7화음 (3권 p.18)


다(대)장조의 I·IV·V·V₇ 화음

5 3 1 5 2 1 5 3 1 5 2 1

I IV V V₇

온음화음 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딸림7화음

이어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장조의 음계와 3화음, 딸림 7화음이 각 장조 단조 별로 제시된다. 임시표 중 제자리표를 4권에서 취급하지만 제자리표는

 피아노를 치기 전에 먼저 리듬을 익히세요.

1. 손뽁치기
2. 손가락 번호로 읽기
3. 가사 읽기

<그림 2> 리듬 익히기 방법 (1권 p.10)

그리고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가 제시되지만 쉼표는 다루지 않는다. 2권에서는 온쉼표, 4분쉼표, 2분쉼표를 배운다. 3권에서 8분음표, 점4분음표, 8분쉼표가 등장하고 당김음이 나타난다. 4권에서는 셋잇단음표, 16분음표, 점8분음표와 16분쉼표의 순서대로 나온다.

이 교재의 리듬 읽기는 하나-둘-셋-넷으로 표기되었으나 하나-두울-세엣-네엣으로 음절을 나눠서 읽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다. 또한, 리듬을 배울 때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리듬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2권에서부터 p, f, mp, mf의 악상 기호가 등장한다. decresc.가 한국어로 ‘점점 여리게’라고 표시되고 원어나 한국어가 아닌 악상 기호로 제시된다. 3권에서는 크레센도가 원어(cresc.)로 나온다. 통일성이 없는 악상의 표현 방식은 초급단계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빠르기말은 3권부터 제시되는데 초반부에 Allegretto(조금 빠르게)와 Moderato(보통빠르기)가 등장하고, 중반부에 Andante(느리게)가 나타나며 후반부에 Allrgro(빠르게)가 나온다. 또한,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경쾌하게, 왈츠 풍으로와 같은 지시어가 사용된다. 그 외에도 rit. 페르마타, dim.(악어는 나와 있으나 설명이 없다)와 Comodo(알맞은 빠르기로, 평온하게), Andante con moto(움직임을 가지고 천천히), D.C. al Fine, poco cresc. dolce, Allegro Moderato가 나온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권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한손연주 양손연주	이음줄 레가토 스타카토 붙임줄	알베르티 베이스 손가락 넓히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악센트 손가락 넘기기 손가락 좁히기	앞 짧은 꾸밈음 스타카티시모
음정	1도 2도 3도 5도 가락음정	4도 가락음정 2~5도 화성음정 옥타브 덧줄-낮은음자리 윗덧줄 '레'	6도 가락, 화성음정 덧줄-높은음자리표 아랫덧줄 '시'	7도, 8도 가락음정 덧줄-높은음자리 윗덧줄 '라' 낮은음자리 윗덧줄 '미' 3도 겹음 다장조,
조성	다장조	사장조 5음 음계	다장조 3화음 임시표(#, b) 라장조 사장조, 바장조 5음 음계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장조 음계와 주요3화음, 팔립7화음 임시표 (#, b, k)
박자	4/4 3/4	4/4 3/4	4/4 3/4 2/4 못갓춘마디	4/4 3/4 2/4 6/8 3/8
음가			 당김음	
나타낸 말 및 지시어	마디 세로줄 끝세로줄 도돌이표	p, f, mp, mf, cresc. decresc.	Allegretto Moderato Andante Allegro rit.	◡, dim Comodo Andante con moto Da capo al Fine Poco Cresc. Dolce Allegro Moderato

2) 『포인트 바이엘』

① 교재 구성 및 특징

삼호뮤직 출판사의 『포인트 바이엘』은 2007년 2월 2일 출간됐다. 1권 35곡, 2권 57곡, 3권 45곡, 4권에는 57곡의 연습곡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포인트 바이엘』의 특징이다.

첫째, 연습곡의 제목이 너무 작게 쓰여 있는 반면 연습곡의 악보는 크게 그려져 있어 제목과 악보의 비율이 조화롭지 못하다(악보 9 참조).

<악보 9> 작게 쓰여 있는 연습곡의 제목 (1권 p.64)

바둑이 방울
김규환 작사 | 김규환 작곡

둘째, 다른 교재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단계별로 수록된 연주곡들의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의 부담이 덜 하다.

셋째, 교재 하단 ‘포인트’란에 곡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어서 초급 학습자의 연습방법에 도움을 준다(악보 10 참조).

<악보 10> 교재 하단에 제시된 ‘포인트’ 설명 (1권 p.64)

포인트 ① 같은 음을 반복할 때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온셈표)가 있는 ②에서는 오른손만 연주하고, ③에서는 왼손만 연주합니다.

넷째, 동요, 외국 곡, 클래식 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 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빠르기말이 한국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빠르기말의 음악 용어를 원어로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여섯째, 교재에서 제시되는 기초 이론 학습 과정과 연습곡에서의 적용이 일치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본 교재는 건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4분음표, 2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와 손가락번호를 제시한다. 대부분 다른 교재의 무보표 연습곡에서는 점2분음표가 찾아보기 어렵다. 총 6곡의 검은 건반 연습곡은 두 그룹 검은 건반은 사용하지 않고 세 그룹 검은 건반만 사용한다. 검은 건반에서 2-3-4번을 사용하는 연습곡은 3번 손가락을 중심으로 손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손 모양 형성에도 효과적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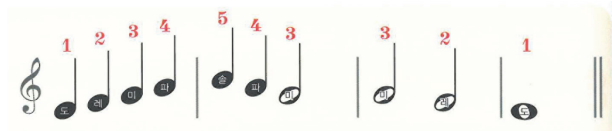


3개의 검은건반에 왼손을 올려놓고, 2·3·4번 손가락으로칩니다.

<그림 3> 세 그룹 검은 건반 (1권 p.16)

무보표에서의 흰 건반 연습곡은 총 11곡으로 구성되고, 무보표 연습곡 앞머리에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가 등장한다. 또한, 음표의 머리에 계이름을 써 놓아 음정을 이해하고, 악보를 보고 치는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악보 11 참조).

<악보 11> 흰 건반 무보표 연습에서 등장한 높은음자리표, 음표의 머리에
 쓰여 있는 계이름 (1권 p.26)



본 교재의 무보표 연습곡에서는 음정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보표 연습곡에서
 는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가운데 도, 아래 도)이 사용되었다.

③ 테크닉

포인트 바이엘 1권의 오선 보표에서는 오른손과 왼손 각각 한손씩 연주하는
 연습곡이 10곡이며 양손을 주고받는 양손 연습곡은 3곡이고 큰 보표가 제시되
 면서 본격적인 양손 연습이 등장한다. 2권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테크닉은 4마
 디의 걸친 긴 프레이즈의 이음줄이다. 이때 ‘이음줄은 음 높이가 다른 2개 이
 상의 음을 이은 줄로,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라고 이음줄의 개념을 설
 명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
 명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 연습곡에서는 양손 모두
 이음줄 연주를 하고, 교재 하단에 ‘줄이 끝나는 부분에서 손을 가볍게 들어 올
 리라’고 하는 지시는 연주 방법의 이해를 돕는다(악보 12 참조).

<악보 12> 이음줄 테크닉 (2권 p.32)

양손이 고르게 칠 수 있도록 박자와 손가락 번호를 잘 지키세요.

이음줄
음 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을
이음 줄로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

비이열 11번

포인트 ① 왼손이 3번 손가락으로 시작합니다. 주의해서 연주하세요.
② 이음줄이 끝난 부분에서는 손을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이음줄 연습 후에는 레가토 주법, 두음 슬러, 세음 슬러, 스타카토를 배운다. 3권에서는 악센트와 손가락 벌리기 연습, 손가락 넘기기, 같은 음에서 손가락 번호 바꾸기, 손가락 좁히기 연습을 취급하고 붙임줄이 등장한다(악보 13, 14 참조).

<악보 13>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좁히기 (3권 p.48)

f 잔 잔 잔 잔 잔 잔 즐 - 겁 게 음 을 위

잔 잔 잔 잔 잔 잔 모 두 모 두 충 위 요

<악보 14>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3권 p.46)



4권에서는 1, 2, 3권에서 학습한 모든 테크닉들이 연습곡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④ 음정, 조성

1권에서는 음정의 설명 없이 1도, 2도, 3도, 5도 가락 음정이 제시되는데 2권에서 음정의 개념 설명과 함께 1도, 2도, 3도, 4도, 5도 가락 음정과 화성 음정을 취급한다. 3권에서 사용되는 최초의 덧줄은 높은음자리 아랫덧줄(‘시’ 음), 낮은음자리 윗덧줄(‘솔’ 음)이다. 또한 3권에서는 옥타브와 6도 화성 음정이 나타나고 4권에서는 7도, 8도 가락음정을 배운다. 교재 1권에서 4도 음정이 제외되었지만 2권에서 음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했다.

본 교재의 연습곡들은 다장조로 시작하고 2권에서 사장조 5음 음계, 3권에서 다장조 5음 음계, 가단조 5음 음계, 라장조 5음 음계의 연습곡이 올림표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가 제시된다. 교재 4권 초반부에서 바장조 조성을 접하고 4권 전체에 걸쳐 다장조,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 딸림7화음을 제시한다.

⑤ 박자, 음가

1권과 2권에서 4/4박, 3/4박자 연습곡들을 다루고 3권에서 2/4박자가 제시된

다. 4권 교재 초반에서 못갖춘마디가 나타나고, 1, 2, 3권에서 취급한 4/4박자, 3/4박자, 2/4박자와 6/8박자는 4권 전체 연습곡을 통해서 다시 다루어지나 3/8박자는 제외된다.

1권의 무보표 연습곡에서 리듬 읽기는 한 마디를 ‘하나, 둘, 셋, 넷’으로 표기했고 손뼉 치기로 리듬을 쳐보도록 지시하고 있다(악보 15 참조). 이러한 손뼉 치기와 같은 신체 활동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리듬을 연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박수 소리는 지속적이지 않아 긴 음가나 느리게 연습을 할 경우 손뼉 치기가 아주 좋은 리듬 연습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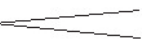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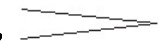
<악보 15> 리듬읽기 (1권 p.16)



포인트 피아노를 치기 전에 손뼉으로 리듬을 쳐 봅시다.

그리고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 온쉼표, 2분쉼표가 차례대로 나타난다. 2권에서는 4분쉼표가 나오고 3권에서 8분음표, 점4분음표, 8분쉼표를 배운다. 4권에서는 당김음, 셋잇단음표, 16분음표가 제시된다.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2권에서 mp, p, pp, mf, f, ff의 셈여림 기호가 등장하고 3권에서 빠르기말이 나타나는데 모든 빠르기말은 한국어로 제시된다. 그리고 cresc.와 decresc.는 한국말과 기호( , )로만 다루어서 원어로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3권의 후반부에서 지시어로 D.C. al Fine가 나타나고 4권에서는 늘임표, dolce, cresc.의 음악 용어들도 연습곡에서 사용된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각 권별로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포인트 바이엘』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p>한손연습 양손연습</p>	<p>이음줄 레가토 스타카토</p>	<p>악센트 알베르티 베이스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 넘기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돌리기 붙임줄</p>	-
음정	<p>1도 2도 3도 5도 가락음정</p>	<p>1도~5도 가락, 화성음정,</p>	<p>옥타브 6도 가락, 화성음정 덧줄-높은음자리 아랫덧줄 ‘시’ 낮은음자리 윗덧줄 ‘솔’</p>	<p>7도, 8도 가락음정 3도 겹음</p>
조성	<p>다장조</p>	<p>솔 자리 다섯음 (사장조 5음 음계)</p>	<p>다장조 5음 음계 사장조 5음 음계 가단조5음 음계 라장조 5음 음계 임시표(# ♯ b)</p>	<p>바장조 5음 음계 다장조,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의 음계와 주요 3화음, 팔림7화음 임시표(#, b)</p>
박자	<p>4/4</p>	<p>3/4, 4/4</p>	<p>4/4, 3/4, 2/4, 6/8</p>	<p>2/4, 3/4, 4/4, 6/8 못갖춘마디</p>
음가				<p>당김음</p> 
나타냄 말 및 지시어	<p>마디 세로줄 끝세로줄</p>	<p>pp, p, mp mf, f, ff 도돌이표</p>	<p>cresc. decresc. D.C al, Fine</p>	<p> dolc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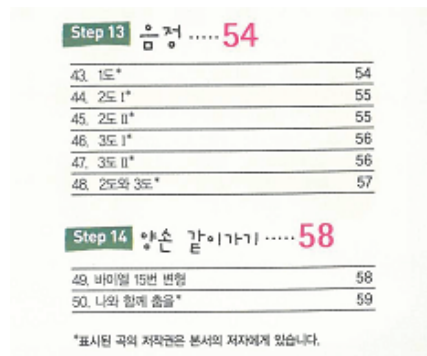
3) 『동그라미 바이엘』

① 교재 구성 및 특징

음악세계의 『동그라미 바이엘』은 2005년 10월 31일에 출간(2016년 2월 20일에 동그라미 바이엘 개정판 출간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05년에 출간된 교재를 사용했다)되었고, 저자는 강금선, 양오경이다. 『동그라미 바이엘』 1권에는 50곡, 2권은 60곡, 3권은 54곡, 4권에는 62곡이 수록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에 저자(강금선, 양오경)가 작곡한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목차에서 노래 제목 옆에 저작권 표시를 해 놓았다(그림 4 참조).



Step 13 음정 54	
43. 1도*	54
44. 2도 I*	55
45. 2도 II*	55
46. 3도 I*	56
47. 3도 II*	56
48. 2도와 3도*	57

Step 14 양손 같이가기 58	
49. 바이엘 15번 변형	58
50. 나의 힘에 춤을*	59

*표시된 곡의 저작권은 본서의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림 4> 저작권 표시 (1권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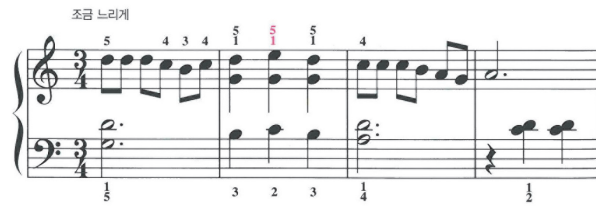
둘째, 1권부터 4권까지의 과정은 초급 단계 학습자가 배워야 할 기초 개념들이 탄탄하게 제시되어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갈 때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3, 4권 연습곡들의 난이도가 어렵고, 각각의 권 별로 수록된 연습곡이 모두 50곡 이상 이므로 진도를 나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셋째, 3권부터 제시되는 8마디 이상의 긴 연습곡에서 음표가 작고 촘촘하

게 나와 있어 악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넷째, 빠르기말은 3권에서 나타나는데 이태리어로 제시되어있지 않고 한국어로 조금 느리게, 보통빠르기로, 경쾌하게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기말의 음악 용어를 원어로 접해보지 못한다(악보 16 참조).

<악보 16> 한국어로 제시된 빠르기말 (3권 p.20)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무보표 연습곡은 총 5곡으로 구성된 검은 건반부터 시작한다. 두 그룹 검은 건반에서 3번 손가락을 시작으로 3-2번 손가락 순서로 연습한 뒤 세 그룹 검은 건반에서 2-3-4번 손가락 순서로 연습을 하게 된다(악보 17 참조).

<악보 17> 무보표 왼손 2, 3, 4번 손가락 연습 (1권 p.10)



3번 손가락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건반 연습은 손의 모양을 균형 있게 만든다.

흰 건반연습은 총 10곡이다. 흰 건반연습을 시작 하면서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가 제시된다. 흰 건반의 첫 연습곡에서 3번 손가락을 기준으로

3-2-1번 순서로 세 음 연습이 진행된다. 그리고 다섯 손가락 연습을 할 때 엄지손가락부터 사용해서 새끼손가락으로 방향으로 연습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음표의 머리에 계이름을 표기해 흰 건반에서 계이름의 이해를 돕는다(악보 18 참조).

<악보 18> 무보표 흰 건반 다섯 손가락 연습, 음표 머리에 제시된 계이름
(1권 p.22)



『동그라미 바이엘』은 무보표 연습곡에서는 음정적 접근법을, 보표 연습곡에서는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을 사용한다.

③ 테크닉

『동그라미 바이엘』 1권에서 오른손과 왼손 각각의 한손연주와 오선보표 양손 연습곡이 총 14곡이며, 큰 보표에서 양손연습곡이 총 19곡 수록되었다. 2권에서 처음 접하는 테크닉은 이음줄과 레가토이다(악보 19, 20 참조).

<악보 19> 이음줄의 설명과 연습곡 (2권 p.16)

이음줄(슬러)

이음줄은 음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을 연결한 줄을 말하며, 이음줄로 연결된 음은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

<악보 20> 레가토의 설명과 연습곡 (2권 p.17)

두 마디에 걸친 이음줄로 프레이즈를 제시하고 이음줄의 설명은 되어있으나 프레이즈 끝에서 손 들어올리거나 두 음 슬러의 down, up에 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세 음 슬러, 스타카토와 레가토, 붙임줄을 배운다. 3권 연습곡에서 손가락 벌리기, 1번 위로 2번 손가락 넘어가기, 3번 손가락 아래로 1번 손가락 돌리기, 1번 4번 손가락 좁히기를 하고 악센트가 사용된 연습곡도 등장한다(악보 21, 22 참조).

<악보 21> 손가락 넘어가기 (3권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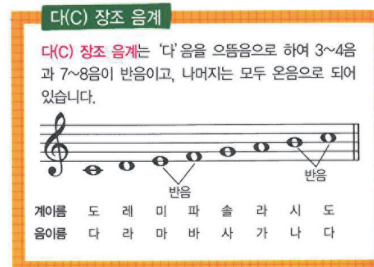
<악보 22> 손가락 좁히기 (3권 p.46)

4권에서 같은 음에서 손가락번호 바꾸기가 등장 하며 이외에 스타카티시모, 짧은 앞꾸밈음, 겹 앞꾸밈음의 이론적 개념 설명 후에 연습곡에 적용되어 꾸밈음 연주법의 이해를 돕는다.

④ 음정, 조성

1권에서 1도, 2도, 3도 가락 음정만 제시되고 2권에서 3도, 4도, 5도 가락 음정과 1도부터 5도까지의 화음을 경험 하며 옥타브가 제시된다. 최초 덧줄의 사용은 낮은음자리 윗덧줄(‘레’ 음)이다. 3권에서 6도 가락음정과 화음, 7도, 8도 가락 음정을 배운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1권에서 1도부터 5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본 교재에서는 1권에 1도부터 3도까지의 음정만 포함하고 3권에서 모든 음정을 취급한다.

본 교재의 조성은 다장조로 시작되며 2권에서 음계의 예비 과정인 사장조 5음 음계, 다장조 5음 음계를 취급하고 3권에서 다장조 온음계를 제시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다장조 음계 (3권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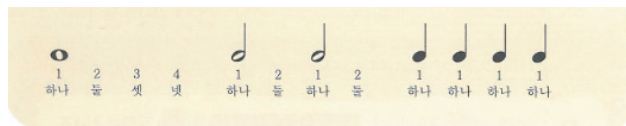
교재 후반에 임시표를 사용한 사장조, 가단조, 바장조의 연습곡들을 익힌다. 4권 초반에서 다장조의 주요 3화음과 딸림7화음을 시작으로 4권 전체에 걸쳐

서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단조, 라장조 순서로 음계와 주요3화음, 딸림7화음을 취급한다. 3화음의 훈련은 좋은 손가락 위치의 발전과 손가락 모양 및 학생의 기술적인 능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훈련이다.³⁹⁾

⑤ 박자, 음가

박자표는 4/4박자를 시작으로 점2분음표를 배우면서 3/4박자가 나타난다. 2권에서 2/4박자, 3권 6/8박자와 3/8박자가 차례로 제시되고 못 갖춘마디의 설명과 이를 적용한 연습곡이 등장한다. 4권에서는 앞서 배운 모든 박자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무보표 연습을 할 때 박자 세기는 4분음표를 ‘하나’로, 2분음표를 ‘하나-둘’, 온음표를 ‘하나-둘-셋-넷’으로 음길이를 표현한다(그림 6 참조). 하지만 교재에서 연습곡과 별개로 리듬 읽기나 신체 활동을 이용한 리듬 익히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 음가 읽기 (1권 p.10)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가 차례대로 나타나고 1권에서 쉼표는 취급하지 않는다. 2권에서는 4분쉼표, 온쉼표, 8분음표가 제시되고 3권에서는 4분쉼표와 8분쉼표를 표로 정리해서 복습을 하고 점4분음표를 다루며 4권에서 16분음표, 점8분음표, 부점리듬이 나타난다. 4권 중후반부에 여러 종류의 당김의 설명을 제시하며(악보 23 참조) 연습곡에서 적용하고 교재 후반부에 셋잇

39)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역), p.130.

단음표가 이론적 개념 설명과 함께 등장한다.

<악보 23> 여러 가지 당김음 (4권 p.56)

1. 음표에 의한 당김음

2.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3. 쉼표에 의한 당김음

4.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

5. 이음줄에 의한 당김음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2권에서부터 쉼여림으로 mf, mp, f, p, 3권에서 decresc.의 기호와 cresc.의 용어, 기호가 등장한다. 그리고 3권에서 pp, 4권에서 ff가 나타난다.

3권에서 빠르기말이 나타나는데 모두 한국어로 조금 느리게, 빠르게, 조금 빠르게 정도로 제시되고 페르마타, leggiero가 등장한다. 4권에서는 D.C. al Fine, rit.가 나온다.

피아노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학습자는 손가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강약의 조절을 통한 아름다운 음색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정이 거듭될수록 연습곡에서 쉼여림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위의 분석 내용을 권별로 정리한 것은 <표 3>과 같다.

<표 3> 『동그라미 바이엘』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한손연주 양손연주	이음줄 레가토 스타카토 알베르티 베이스 붙임줄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 넘어가기 악센트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좁히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스타카티시모 앞 짧은 꾸밈음 겹 앞꾸밈음
음정	1도 2도 3도 가락음정	3도 4도 5도 가락음정 1~5도 화음 옥타브 덧줄-낮은음자리 윗덧줄 '레'	6도 가락, 화성음정, 7도 8도 가락음정 옥타브 덧줄-높은음자리 아랫덧줄 '시' 높은음자리 윗덧줄 '도' 낮은음자리 윗덧줄 '파'	3도 겹음
조성 조성	다장조	사장조 5음 음계	다장조 음계 임시표 (#, b, k)	다장조,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단조, 라장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 떨림7화음
박자	4/4 3/4	4/4 3/4 2/4	4/4 3/4 2/4 6/8 3/8 못갖춘마디	4/4 3/4 2/4 6/8 3/8
음가				 당김음 
나타냄 말 및 지시어	마디 세로줄 끝세로줄 도들이표	mf, mp, f, p	도들이표 1 st ending 2 nd ending decresc. cresc. pp ∩ leggiero	dolce cresc. decresc. dim. D.C. al Fine rit. ff

4) 『바이엘 하늘자전거』

① 교재 구성 및 특징

세광음악출판사에서 출간된 『바이엘 하늘자전거』는 2011년 9월 22일 초판 되었다. 교재의 각 권별 수록곡은 1권 54곡, 2권 59곡, 3권 60곡, 4권은 56곡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엘 하늘자전거』는 만화와 동화의 등장인물을 제시한다. 1권 헨젤과 그레텔, 2권 백설공주, 3권 피노키오, 4권은 알라딘이다. 교재의 삽화에 등장인물의 설정은 전체적인 연습곡에 통일감과 친밀감을 주고 어린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등장인물 소개 (1권 p.3)

둘째, 부록으로 1, 2권에 이론 부교재와 3, 4권에 실용 반주 부교재가 함께 들어있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 1, 2권 부록인 이론 교재는 바이엘 교본의 수

준보다 쉽게 나와 있었고 3, 4권의 실용 반주법 교재는 간단한 코드 반주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연습곡에서 교재 하단에 날짜 란과 과일, 도형의 빈칸을 두어 연습량을 체크하도록 해 놓았다(그림 8 참조). 이는 학습자가 연습 시 지루함을 방지하고 성취감을 유발하게 한다.



<그림 8> 연습량 체크 (1권 p.15)

넷째, 새로운 박자표가 나타날 때 강약을 표시한 예비 박을 제시해서 안정된 박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악보 24 참조).

<악보 24> 예비박 (1권 p.36)



다섯째, 학습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듀엣연주를 통해 음악성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악보 25 참조).

<악보 25> 듀엣연주 (2권 p.60)

여섯째, 연습곡 중간에 주요 테크닉 연습 과정을 소개한 후 연습곡에서 자연스럽게 적용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습 과정 중 연습곡에 기초이론 문제를 제시해 배우고 있는 과정의 내용, 이론을 학습 하도록 했다(악보 26 참조).

<악보 26> 연습곡에 제시한 이론 (3권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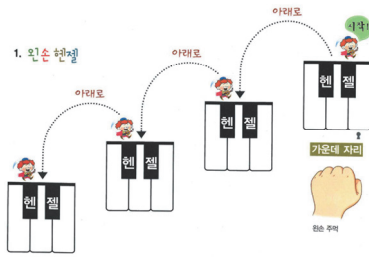
일곱째, 교재 앞부분에서 전 권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했고, 교재 마지막 연습곡인 ‘사랑해요’ 파트는 해당 권에서 배운 학습과정이 모두 담긴 곡으로 연주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악보 27 참조).

<악보 27> 사랑해요 (3권 p.8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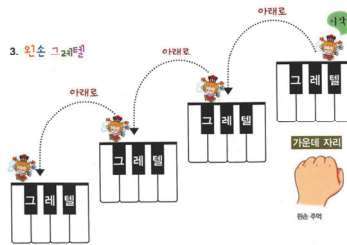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먼저 검은 건반 두 개를 ‘헨젤’ 이라 칭하고 왼손 주먹으로 모든 두 그룹 검은 건반을 동시에 치면서 아래로 내려간다(그림 9 참조).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며 두 그룹 검은 건반을 모두 치게 한다. 다음은 검은 건반 세 개를 ‘그레텔’ 건반 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도’자리를 기준으로 모든 세 그룹 검은 건반을 주먹으로 소리 내는데, 왼손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치고, 오른손은 위로 올라가면서 쳐보도록 한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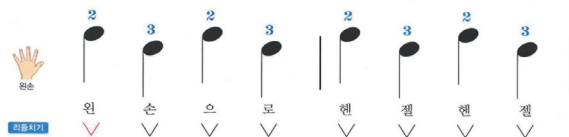
<그림 9> 두 그룹 검은건반 ‘헨젤’ (1권 p.10)



<그림 10> 세 그룹 검은 건반 ‘그레텔’ (1권 p.12)

검은 건반 연습은 총 10곡으로 진행되는데, 세 그룹 검은 건반에서 2, 3, 4번 손가락을 사용한 연습은 주로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해 2-3-4번 손가락을 순서로 진행한다. 마지막 검은 건반 연습에서는 4-3-2번 손가락의 순서로 연습을 한다(악보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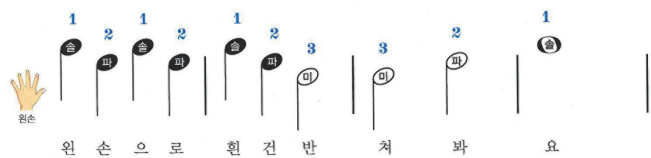
<악보 28> 무보표 검은 건반 연습 (1권 p.14)



흰 건반 연습은 총 5곡이다. 무보표 흰 건반 연습에서 음표 머리에 계이름을 제시해 음표의 방향에 따른 높낮이와 건반에서의 계이름을 익히도록 도왔다(악보 29 참조).

<악보 29> 무보표 흰 건반 연습 (1권 p.24)

● 흰건반에 왼손을 올려놓고, 1·2·3번 손가락으로 치세요.



보표 연습에 들어가기 전 건반에서의 '도'의 자리를 제시한다(악보 30 참조).



<그림 11> 도의 자리 (1권 p.32)

『바이엘 하늘자전거』의 무보표 연습에서는 음정적 읽기 접근법을 사용하고, 보표 연습곡에서는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을 사용한다.

③ 테크닉

무보표 흰 건반 첫 번째 연습곡에서는 오른손 1번부터 5번의 순차진행으로 건반을 누르는 바른 손 모양을 만들기 위한 테크닉 연습곡이 나온다(악보 30 참조). 어린 학습자는 손가락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하는 손가락의 진행은 손 모양이 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바른 손 모양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악보 30> 오른손 1번-5번의 바른 손 모양 테크닉 연습 (1권 p.23)

● 레슨 1

- 왼손 위에 손을 올려놓고, 동그란 손 모양을 만드세요.
- 손가락을 세워서 **단단히** 한 후, 손끝 연습을 해보세요.
- 손목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번 손 끝 단 단 히

2 번 손 끝 단 단 히 3 번 손 끝 단 단 히

4 번 손 끝 단 단 히 5 번 손 끝 단 단 히

교재 후반에 가서야 최초로 양손을 동시에 연주하는 연습곡이 등장한다. 그리고 손가락 차례가기, 건너뛰기를 배운다. 1권에서 다루는 최초의 연주 테크닉으로는 이음줄이 등장하는데 두 마디씩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게 하고, 이음줄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손목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다 (악보 31 참조).

<악보 31> 이음줄 (1권 p.62)

42. 골짜기의 시냇물
알리오르 작곡

이음줄(슬러)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연결한 줄로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

● 2마디씩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고, ♪표가 있는 곳에서 손목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세요.

가 랑 일 밀 에 서 단 잠 을 자 고 요

이후 연습곡에서 세 음 슬러가 등장하고 2권에서는 8마디로 제시되는 긴 레가토주법이 등장하는데 양 손 모두 레가토로 연주하도록 지시한다. 이외에 스타카토, 붙임줄, 알베르티 베이스가 나온다. “알베르티 베이스는 소나티나 반주가 있는 형식의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되어야 한다.”⁴⁰⁾ 또한, 3권에서 제시하는 손가락 테크닉은 손가락 넘어가기(악보 32 참조), 손가락 넓히기(악보 33 참조), 같은 음 손가락 번호 바꾸기(악보 34 참조), 손가락 좁히기, 음계에서 부드러운 손목연습, 화음에서 손목의 힘 빼기 연습이다. 그리고 악센트 연습이 나온다.

<악보 32> 손가락 넘어가기 (3권 p.19)

이 리 연 습

오른손

2번 손가락이 1번 위로 넘어가 시를 씁니다.

40) James W. Bastien.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송지혜(역), p.131.

<악보 33> 손가락 넓히기 (3권 p.22)



<악보 34>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3권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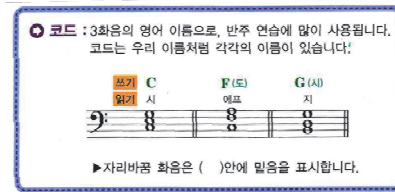


④ 음정, 조성

1권에서 다루는 음정은 1도부터 5도의 가락음정이다. 2권에서는 1도 부터 5도 음정의 설명과 가락음정, 화음을 연습하고 옥타브 연주가 등장한다. 또한 교재 2권의 연습곡에서 사용된 최초의 덧줄은 낮은음자리 윗덧줄(‘레’ 음)이다. 3권에서는 6도 가락, 화성음정을 배우고 4권에서는 높은음자리 윗덧줄(‘레’ 음), 아랫덧줄(‘솔’ 음)을 배운다.

본 교재에서도 가장 먼저 제시된 조성은 다장조이며 2권 중반부에서 사장조 5음 음계, 다장조 5음 음계의 곡을 연습한다. 3권에서 가단조 5음 음계, 그리고 올림표를 사용해 사장조 5음 음계, 라장조 5음 음계를 연습하고 내림표를 사용한 바장조 5음 음계를 연습한다. 교재 후반에서 다장조 음계와 주요3화음, 딸림7화음을 배우면서 C, F, G코드를 같이 제시하고(악보 35 참조) 가단조 음계를 배운다.

<악보 35> C, F, G코드 (3권 p.73)



4권에서 임시표의 개념을 설명하고 올림표와 내림표, 제자리표를 연습곡에 적용한 후 교재 전체에 걸쳐 사장조, 바장조, 라장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 딸림7화음을 배운다. 또한, 각 조성의 주요3화음과 딸림7화음을 코드로 제시하고 응용반주를 하도록 돕는다.

⑤ 박자, 음가

1권에서는 4/4박자가 높은음 자리 보표 연습에서 등장하고, 큰 보표 연습이 제시된 후에 3/4박자가 나타난다. 2권에서는 2/4박자, 3권에서는 못갓춘마디가 나오고 6/8박자가 나온다. 4권에서는 앞서 배운 모든 박자표와 3/8박을 배운다.

무보표 연습곡에서 리듬의 표시는 음표 아래에 리듬 기호로 표시했고 4분음표를 ‘딴’(그림 12 참조), 2분음표를 ‘따안’, 온음표를 ‘따아아안’으로 읽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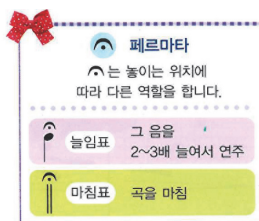
<그림 12> 4분음표 리듬 읽기 (1권 p.15)

리듬을 읽는 법은 설명 되었으나, 리듬을 배우기 위한 신체활동이나 피아노를 치기 전에 박자를 읽는 연습은 제시되어있지 않아서 리듬 읽기를 연습 할 기회가 없다. 교사가 따로 리듬읽기를 연습시켜 리듬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권에서 사용되는 음가는 무보표 연습시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가 제시되며 3/4박자를 배운다. 점2분음표와 4분쉼표가 등장하고 2권에서 온쉼표, 2분쉼표, 8분음표와 당김음이 나타난다. 3권에서 8분쉼표, 점4분음표를 배운다. 4권에서는 16분음표, 점8분음표, 부정리듬, 셋잇단음표가 나온다.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1권에서는 p, f가 제시되고 2권 초반부에 mp, mf가 제시된다. 교재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cresc. decresc.(한국어와 기호로만 제시되고 원어로는 나오지 않음)를 배우고, 중후반부에 D.C. al Fine가 나타난다. 빠르기말은 3권부터 제시되는데 Moderato(보통빠르게), Andantino(조금 느리게)와 Allegretto(조금 빠르게)를 다루고, 4권에서 Andante(느리게), Allegro(빠르게)가 제시되지만 연습곡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3권 지시어로 늘임표(페르마타)를 취급하는데, 4권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른 페르마타의 역할을 설명한다(그림 13 참조). 마침표 역할을 하는 페르마타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rit.와 dolce가 나온다.



<그림 13> 페르마타 (4권 p.7)

위의 분석 내용을 권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바이엘 하늘자전거』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p>한손연주 양손연주 차례가기 건너뛰기 이음줄</p>	<p>레가토 스타카토 붙임줄 알베르티 베이스</p>	<p>손가락 넘어가기 손가락 넓히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좁히기 부드러운 손목 연습 손목의 힘 빼기</p>	<p>악센트</p>
음정	<p>1도~5도 가락음정</p>	<p>1도~5도 가락, 5화성음정 육타브 덜줄-낮은음자리 윗덜줄 '레'</p>	<p>6도 가락, 화성음정 덜줄-높은음자리 아랫덜줄 '솔' 높은음자리 윗덜줄 '라' 낮은음자리 윗덜줄 '미'</p>	<p>3도 겹음 덜줄-높은음자리 윗덜줄 '레' 높은음자리 아랫덜줄 '솔'</p>
조성	<p>다장조</p>	<p>사장조 5음 음계 다장조 5음 음계</p>	<p>다장조의 음계, 주요3화음과 팔림7화음 가단조 음계 임시표(# b) 라장조 5음 음계 바장조 5음 음계</p>	<p>임시표 (#, b, ♯) 사장조, 바장조, 라장조의 음계, 주요3화음과 팔림7화음</p>
박자	<p>4/4, 3/4</p>	<p>4/4, 3/4, 2/4</p>	<p>4/4, 3/4, 2/4, 6/8, 못갖춘마디</p>	<p>4/4, 3/4, 2/4, 6/8, 3/8</p>

음가	♪ ♪ ○ ♫	- - ♪ 당김음	7 ♪	♪ ♪ ♪
나타낸 말 및 지시어	마디 세로줄 끝세로줄 p, f	mp, mf, cresc. delesc. D.C. al Fine	Moderato Andantino Allegretto ⌒	⌒ rit. Andante Andantino Moderato Allegretto Allegro dolce

5)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① 교재구성 및 특징

세광 데이터테크에서 출판된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은 2006년 출판되었고 저자는 남주희이다. 1권 43곡, 2권 35곡, 3권 45곡, 4권은 50곡이 수록 되어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서에 맞는 전래 동요, 대중가요, 클래식 곡 등 연습곡을 여러 장르로 구성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수록된 연습곡에는 저자가 작사/작곡한 곡이 포함되었다(악보 36 참조).


<악보 36> 저자의 자작곡 (1권 p.63)

남주희 작사/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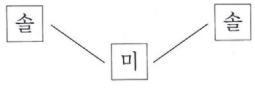
둘째, 교재의 학습과정에 스티커 붙이기나 놀이 학습, 게임, 연탄 연주 등 피아노 연주 이외의 활동을 첨가해 어린 학습자의 흥미를 최대한 유발하도록 구성했다.


셋째, 1, 2권의 연습곡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 연주를 여러 연습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은 어린 학습자의 음악성과 흥미를 증진시킨다.


넷째, 다른 교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창과 청음 훈련이 등장한다(그림 14, 15 참조). 절대 음감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교육에 의한 절대음감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즐거움 시창** 선생님과 함께 불러 보세요.

솔 미 솔






 피아노를 배움과 동시에 바른 음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통통이 시창을 지도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아래의 선율을 피아노와 함께 게임으로 불러 주신 후 어린이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 부르도록 지도합니다.



솔 미 솔

<그림 14> 시창 (1권 p.15)

 **즐거움 청음** 선생님께서 쳐 주시는 피아노 소리가 똑같은지 다른지 알아맞혀 보세요.

①  ② 

<그림 15> 청음 (1권 p.19)

둘째,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은 테크닉에 많이 치중되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는데, 교재 머리말에 “우리나라의 피아노 교육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테크닉적인 면에 치중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테크닉 상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에 피아노의 꿈을 접는 실정입니다.”⁴¹⁾라고 기술한 것을 봤을 때 저자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 됐음을 알 수 있다. 테크닉을 주석이나 설명으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연습곡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으나 교사의 개념 설명이 따로 필요하다.

셋째, 빠르기말이 한국어로 보통 빠르게, 조금 느리게 정도로만 제시되어 원어인 이탈리아어로 빠르기말을 접해볼 수 없다(악보 37 참조).

<악보 37> 한국어로 제시된 빠르기말 (3권 p.54)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무보표 건반 연습에서는 음표를 제시하지 않고 손가락 번호를 사용한다 (악보 38 참조).

41) 남주희,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1권, 서울: 세광 데이터테크(2006), p.3.

<악보 38> 무보표 리듬읽기 (1권 p.8)



흰 건반 연습에서는 ‘세 개의 도의 자리’ 연습을 하는데, 양손 2번 손가락을 사용해 ‘아래 도’, ‘가운데 도’, ‘높은 도’ 자리를 찾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높은음자리 보표 연습으로 넘어간다. 검은 건반 연습곡은 3곡, 흰 건반 연습은 1곡이다.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의 보표 연습곡에서는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을 사용한다.

③ 테크닉

1권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테크닉은 레가토와 스타카토이다(악보 39 참조). 레가토는 오른손에서 4마디에 걸친 프레이즈로 제시되고 왼손은 긴 음가로 반주를 하게 하는데, 이때 왼손에서 나타나는 긴 음표는 빨리 끊어지지 않게 정확한 음표의 길이를 지키도록 주의해야한다. 그 다음 4마디는 스타카토로 제시되는데, 스타카토의 짧은 음 연주는 건반에서 손가락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보다는 얼마나 빨리 건반으로 되돌아오는지가 중요하다. 어린 학습자에게는 ‘빗방울이 튀기듯이, 참새의 발자국’ 같은 비유를 제시하며 지도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악보 39> 레가토와 스타카토 (1권 p.70)



2권에서 이음줄의 설명은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음줄의 끝 음 연주 시 손목 사용하는 방법이나 두 음 슬러의 연주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악센트, 붙임줄의 순서로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붙임줄은 어떤 설명도 없이 연습곡에서 먼저 연주가 되고 몇 곡의 연습곡이 지난 후 개념 설명과 연주 방법이 나온다. 2권에서 다루어지는 손의 확장은 손가락 넘기기(악보 40 참조), 3권에서는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악보 41 참조), 손가락 돌리기를 배우는 연습곡을 다룬다.

<악보 40> 손가락 넘기기 (2권 p.80)



<악보 41>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4권 p.17)



4권에서는 테누토, 앞 짧은 꾸밈음을 취급하지만 개념과 연주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다.

교재 후반에 4마디에 걸친 긴 페달을 사용한 연습곡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악보 42 참조). 페달은 연주에 효과를 더해주는 장치로 음향을 풍부하게 할 때나 음을 연결 해 줄 때 사용된다. 이 연습곡에서 제시되는 4마디의 긴 페달은 같은 화음이라서 무방하나 2마디 마다 페달을 바꿔 주도록 편집 되었다면 더 깨끗한 음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42> 페달 사용 (4권 p.68)



④ 음정, 조성

본 교재는 전체적으로 음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1권 연습곡을 통해 1도~5도 가락 음정과 왼손 3도 화음 반주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2권에서는 6도와 8도 음정, 4권에서 7도 8도 음정을 다룬다. 교재 후반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덧줄은 높은음자리 아랫덧줄(‘시’ 음), 낮은음자리 윗덧줄(‘레’ 음)이다.

본 교재의 조성 개념은 교재에 따로 설명되지 않고 연습곡의 제목이나 가사에서 제시한다. 조성을 제시하기 전에 5음 음계로 음계(scale) 예비연습을 하는데, 2권에서는 사장조 5음 음계와 임시표로 올림표를 사용한 라장조 연습곡과 내림표를 사용한 바장조 연습곡을 경험할 수 있다. 3권에서는 다장조 온음계 스케일과 주요 3화음, G7코드가 제시되는데, 주요 3화음이 나타난 후에는 연습곡에서 악보에 코드가 적혀서 나온다(악보 43, 44 참조). 코드의 사용은 실용 반주법이나 화성 연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악보 43> 다장조 주요 3화음 (3권 p.33)

The musical score is for a piece titled '<악보 43> 다장조 주요 3화음 (3권 p.33)'. It is written in 4/4 time and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contains the first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treble cle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with a '1' above the first note. The lyrics are 'C 는 도 미 솔'. The second measure has a treble cle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with a '1' above the first note. The lyrics are 'F 는 파 라 도'. The second system contains the next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treble cle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with a '1' above the first note. The lyrics are 'G 는 솔 시 레'. The second measure has a treble cle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with a '4' above the first note and a '3' above the second note. The lyrics are 'f 주 요 3 화 음'. Fingerings are indicated by numbers 1-5. Dynamics include mp and cresc. Chords are labeled C, F, and G.

<악보 44> 악보에 제시된 코드 (3권 p.36)

The image shows a piano accompaniment score for a song.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has four measures with lyrics: '저 산맥은 말도없이 오천년을 살았네'. The second system also has four measures with lyrics: '모진바람을 다 이기고 이터지지 켜왔네'.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C, F, G7, and C. The score includes fingering numbers (1-5) and dynamic markings like '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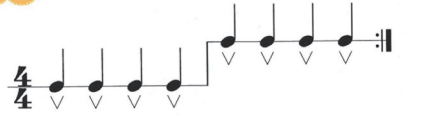
그리고 3권 전체에 걸쳐서 임시표를 사용한 연습곡으로 가단조(자연, 화성, 가락단음계 모두 취급), 내림 나장조, 라장조, 바장조의 연습곡을 집할 수 있다. 3권 후반에서 조표의 등장으로 바장조 곡이 나타나고, 4권에서는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순서로 각 조성의 스케일과 주요3화음, 팔림7화음을 취급한다.

⑤ 박자, 음가

1권에서 처음 제시되는 박자표는 3/4박자와 4/4박자이다. 2권에서는 2/4박자가 제시되고, 3권에서는 마지막으로 6/8박자가 나타나고 더 이상의 박자표는 제시되지 않는다. 4권에서는 1, 2, 3권에서 취급된 4/4박자, 3/4박자, 2/4박자, 6/8박자를 모두 연습곡에서 다룬다. 또한, 3권에서는 못갓춘마디가 나타나는데, 못갓춘마디의 설명은 연습곡의 가사를 통해서 한다.

1권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음가는 4분음표이며 리듬치기를 통해 음가를 익히도록 한다(그림 16 참조).

리듬치기



아래와 같이 선생님과 어린이가 교대로 “도도도도”하고 게이름을 부르며 리듬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림 16> 리듬치기 (1권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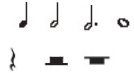
그 외에 제시되는 음표는 2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와 4분쉼표, 2분쉼표, 온쉼표순서이다. 2권에서는 8분음표, 점4분음표, 8분쉼표, 3권에서는 당김음과 점8분음표, 16분음표, 부점리듬을 제시한다. 4권에서는 셋잇단음표와 네개의 16분음표를 배운다. 모든 음가는 연습곡에서 다루어지기 전 리듬치기를 통해 제시된다. 리듬치기는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필요한 활동이다. 건반을 치거나, 손뼉을 치거나 하는 여러 활동을 적용 할 수 있다.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1권에서는 f와 p의 악상 기호가 나타나고, 2권에서는 cresc. dim. decresc. mf가 나온다. 빠르기말은 3권부터 한국말로 보통 빠르게, 조금 느리게 등으로 제시된다. 그 외에 지시어로 페르마타(늘임표)가 나타난다. 3권에서는 All' ottava alta(전부 한 옥타브 올려서)가 나오고 4권에서는 D.C. al Fine, rit. a tempo를 취급하고 셈여림으로는 ff, pp가 나타난다.

위의 분석 내용을 권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한손연습 양손연습 레가토 스타카토	이음줄 악센트 붙임줄 손가락 넘기기	알베르티 베이스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돌리기	테누토 페달 앞 짧은 꾸밈음
음정	1~5도 가락음정 3도 화음반주 옥타브 높은음자리 아랫덧줄 ‘시’ 낮은음자리 윗덧줄 ‘레’	2도 3도 5도 6도 8도 가락, 화성음정	높은음자리 윗덧줄 ‘레’ 높은음자리 아랫덧줄 ‘라’ 낮은음자리 윗덧줄 ‘미’	높은음자리 아랫덧줄 ‘솔’ 낮은음자리 윗덧줄 ‘솔’ 낮은음자리 아랫덧줄 ‘미’
조성	다장조	솔 자리 다섯음(사장조 5음 음계) 임시표(# b) 바장조, 라장조 5음 음계	다장조 스케일 주요3화음, G7코드 임시표 b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의 스케일과 주요3화음, 딸림7화음 임시표 # b b
박자	4/4 3/4	4/4 3/4 2/4	4/4 3/4 2/4 6/8 못갖춘마디	4/4 3/4 2/4 6/8
음가			당김음 	
나타냄 말 및 지시어	마디 세로줄 끝세로줄 도들이표 f p	cresc., dim. mf ∩	All 'ottava alta(전부 한 옥타브 올려서) mp mf	D.C. al Fine rit. a tempo ff pp

6) 『I LOVE 바이엘』

① 교재구성 및 특징

태림 출판사에서 출간된 『I LOVE 바이엘』은 2003년 1월 15일 초판 되었고 1권 45곡, 2권 46곡, 3권 56곡, 4권은 56곡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안혁, 그림은 강수경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맨 앞(차례 전)에 제시된 ‘내가 외운 곡’ 부분은 연습곡의 암보를 통한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동기가 부여된다.

둘째, 교재의 목차에 곡 제목과 그 곡에서 배우는 음악적 기초 이론이 같이 쓰여 있어서 연습곡을 통해 이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그림 17 참조).

■ 아름다운 3도 음	건너뛰기	43
■ 바이올린과 첼로	붙임줄	44
■ 비야뎀뤼라	3도 화성 음정	45
■ 아름다운 느낌		46
■ 달		47
■ 부드러운 4도 음	4도 가락 음정	48
■ 아기구름		49
■ 그 네	4도 화성 음정	50
■ 사랑해요		51

<그림 17> 목차에 제시되는 기초 이론 (1권 p.5)

셋째, 차례에 나타난 캐릭터로 된 등장인물은 교재 전체에 걸쳐 삽화에 계속 등장해 삽화의 통일감을 주고, 제목과 알맞게 연상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학습자들의 친밀감을 유발한다.

넷째, 연습곡에서 계이름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산도, 페달의 사용으로 새로운 연주 효과를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다(악보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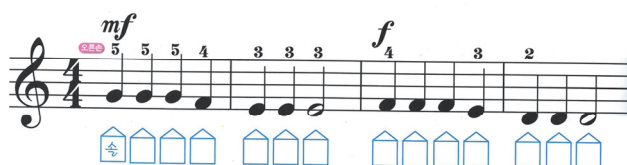
<악보 45> 글리산도와 페달 (2권 p.32)



다섯째, 다른 교재들보다 학습과정의 이론적인 개념들이 빨리 제시되었다. 본 교재의 무보표 연습에서 쉼여림이 등장한다. 다른 교재의 1권에서도 쉼여림(피아노, 포르테)이 나오지만 무보표 연습이 아닌 오선보표나 큰 보표 연습 시 나타난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이론적인 설명이 미흡하거나 생략 되는 경우도 많다.

여섯째, 연습곡에서 기초 이론 문제를 제시해 이론과 실기를 모두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악보 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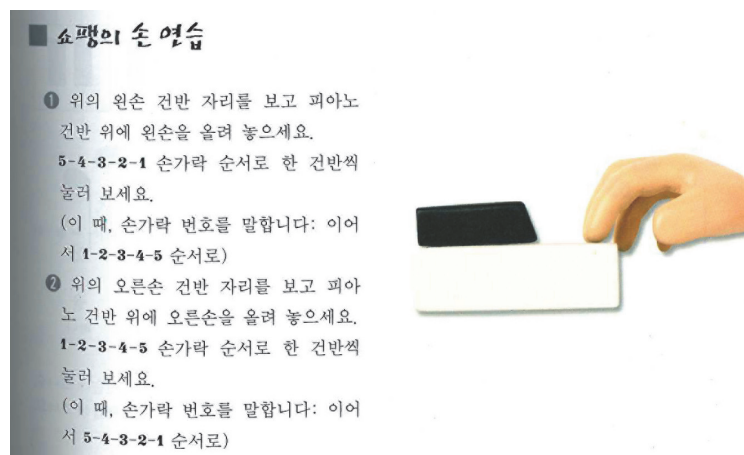
<악보 46> 연습곡에 제시된 이론 학습



② 무보표 접근법과 보표 접근법

건반 연습을 들어가기 전 p.6~7에 '선생님 참고'가 나오는데 선생님 참고는 건반그림과 손가락 번호 표시, 보표와 음표(계이름, 기둥의 방향), 손가락

번호 표시, 세는 법(박자), 손뼉 치기(리듬치기), 연습 순서등의 학생 지도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아노에 앉는 자세, 손가락번호, 손 모양, 쇼팽의 손 연습 등은 학습자가 교재를 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쇼팽의 손 연습 (1권 p.9)

무보표 검은 건반 연습곡은 총 5곡이다. 검은 건반 연습에서 손의 위치는 악보 위에 건반 그림에 표시해 손의 자리를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리듬 읽기는 박을 세면서 손뼉 치기, 손가락 번호를 부르며 연주하기, 박을 세면서 연주하기, 노래하며 연주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연습한다. 검은 건반 연습에서 3번 손가락을 중심으로 두는 2, 3, 4번 손가락의 진행으로 연습한다(악보 47 참조).

<악보 47> 무보표 검은 건반 연습 (1권 p.10)

두 개짜리 검은 건반에서 연주합니다.
(왼손 2, 3번 손가락)

흰 건반 연습곡은 총 3곡으로 진행된다. 흰 건반 무보표 연습은 3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고, 건반에서의 적용이 쉽도록 음표 머리에 계이름을 적어 놓았다(악보 48 참조).

<악보 48> 무보표 흰 건반 연습 (1권 p.20)

본 교재의 무보표 연습에서는 음정적 접근법, 보표 연습에서 수정·절충접근법을 사용한다.

③ 테크닉

1권의 한손연주는 6곡이며, 큰보표가 등장하며 양손연습을 시작한다. 처음 나타나는 테크닉은 레가토이며, 오른손에서 두 마디의 슬러와 왼손 네 마디 슬러가 제시된다(악보 49 참조). <악보 49>의 가사에서 제시된 ‘ 짹’(약박)에서 박수를 치도록 지도하는 것은 약박 이후 무너질 수 있는 템포를 일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악보 49> 레가토 연주 (1권 p.37)

바이엘 25번 변형

f 오 날 은 나 - 도 멋 있 는 요 리 사

보 글 짝 지 글 짝 맛 있 어 요

1 3 4 4 3 4 5

레가토 손가락 지도 표시입니다

그 다음 연습곡에서 두 음 레가토(악보 50 참조), 세 음 레가토가 음정 차례가기로 등장하는데 슬러나 레가토의 연주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악보 50> 두 음, 세 음 슬러 (1권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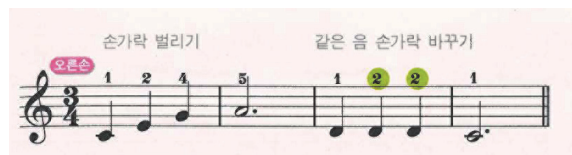
f 차 레 차 레 내 러 가 다 차 레 차 레 올 라 가

1 2 2 3 3 4 5 4 3 2 1

그 이외에 불임줄, 스타카토, 글리산도가 나오는데, 글리산도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글리산도에서 오른쪽 페달을 밟도록 지시하고, 페달의 사용방법은 4권에서 설명한다. 2권에서는 악센트를 배우고, 손가락의 사용으로 손가락 같이 가기(양손이 같은 음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3권에서 손가락 벌리기와 손가락 페달, 손가락 모으기, 손가락 벌리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가 제시된다(악보 51 참조).

<악보 51> 손가락 벌리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3권 p.60)



4권에서는 손가락 넘기기(악보 52 참조), 레가토 페달(그림 19 참조), 손가락 통과하기(악보 52 참조)가 차례로 등장한다.

<악보 52> 손가락 넘기기와 손가락 통과하기 연습 (4권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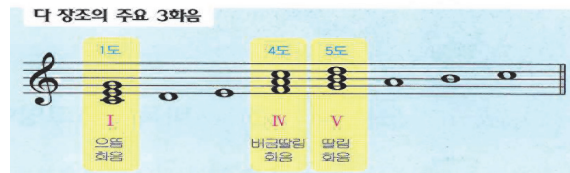
<그림 19> 레가토 페달 (4권 p.17)

④ 음정, 조성

1권에서 1도~5도 가락 음정과 화음이 나타나고, 3권에서 6도, 8도 음정이 등장한다. 4권에서는 7도 8도(옥타브) 음정과 모음 화음과 펼침 화음을 배운다. 최초로 사용되는 덧줄은 낮은음자리 윗덧줄(‘레’ 음)로 3권에서 나타난다.

본 교재는 다장조 연습곡들로 시작한다. 2권에서는 다장조 5음 음계, 사장조 5음 음계 제시로 각각 온음계(scale)의 예비 연습을 한다. 또한, 2, 3권에서 연습곡에서 임시표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가 제시된 후에 연습곡들에 적용된다. 4권에서는 교재 전반에 걸쳐 다장조,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단조의 조성과 음계가 제시되고, 3화음(악보 53 참조), 딸림7화음도 배운다. 주요 3화음을 설명하면서 연습곡에서 C, F, G등의 코드 가 제시된다.

<악보 53> 다장조의 주요3화음 (4권 p.32)



⑤ 박자, 음가

1권에서는 4/4박자, 3/4박자를 배우고, 2권에서는 2/4박자가 제시된다. 3권에서 새로 제시되는 박자는 없고, 4권에서는 6/8박자, 3/8박을 배운다. 2권에서 못갓춘마디가 나타난다.

무보표 연습시 리듬읽기는 4분음표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2분음표는 ‘하나-둘’로 음길이 세기로 읽는다(악보 54참조).

<악보 54> 리듬 읽기 (1권 p.11)



1권에서 무보표 연습을 하며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가 차례로 제시된다. 큰보표 연습을 하며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를 배운다. 교재 1권의 후반부 연습곡에서 당김음을 경험한다. 2권에서는 8분음표를 배우고 교재 후반부에 강총리듬(부점 리듬)이 연습곡에서 나오지만 부점 리듬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두 개짜리 8분음표를 부점 리듬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악보 55참조).

<악보 55> 부점 리듬 (2권 p.63)



3권에서는 점4분음표, 4권에서 8분음표, 셋잇단음표, 16분음표, 점8분음표가 나온다. 점8분음표를 배울 때 2권에서 미리 등장한 강총리듬의 개념을 정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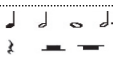




⑥ 나타냄 말 및 지시어

1권에서 p와 f, mf를 배운다. 교재 후반부 연습곡에서 페르마타를 설명하고, accel.는 설명 하지 않지만 연습곡에서 한국어말로 ‘점점 빠르게’라고 나와 accel.를 경험할 수 있다.

2권에서는 mp와 cresc. decresc.(디미누엔도)를 한국어와 기호로 제시한다. 3권에서는 빠르기말이 등장한다. Andante(느리게), Moderato(보통 빠르기로), Allegretto(조금 빠르게), Allegro(바르게)가 원어로 나오고 지시어로 rit. a tempo, Comodo(알맞은 빠르기로)를 배운다. 4권 연습곡에서는 ff, cresc. dim 및 8va(오타바), dolce, Allegro Moderato(알맞은 빠르기로)를 취급한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각 권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I LOVE 바이엘』 권별 분석

	1권	2권	3권	4권
테크닉	한손연주 양손연주 레가토 이음줄, 붙임줄 차례가기 스타카토 건너뛰기 클리산도 페달	악센트 양손 같이 가기	알베르티 베이스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페달 손가락 모으기 같은 음 손가락 바꾸기	손가락 넘기기 레가토 페달 손가락 통과하기
음정	1~5도 가락음정, 화음	-	6도 가락, 화성음정 낮은음자리 윗덧줄 '미'	7도, 8도(옥타브) 덧줄-높은음자리 아랫덧줄 '파' 높은음자리 윗덧줄 '레' 낮은음자리 윗덧줄 '파'
조성	다장조	다장조 5음 음계 사장조 5음 음계 임시표 (#, b, k)	-	다장조 가단조 사장조 바장조 라단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 팔림7화음 나란한조
박자	4/4 3/4	4/4 3/4 못갓춘마디 2/4	4/4 3/4 2/4	4/4 3/4 2/4 6/8 3/8
음가	 당김음			
나타냄 말 및 지시어	마디 세로줄 끝세로줄 p f mf 도들이표 ∪ accel.	mp cresc. decresc. dim. 	Andante Moderato Allegretto Allegro rit. a tempo Comodo	ff, 8va. cresc. dim. dolce Allegro Moderato

2. 종합적 고찰

본 연구에서 6가지 종류의 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얻은 공통점과 교재별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교재의 공통점

첫째, 6가지 종류의 교재 모두 1장의 교재 분석 기준에서 제시한 테크닉, 음정, 조성, 박자표, 음가, 나타냄 말 및 지시어가 학습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포인트 바이엘』에서 3/8박자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나,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의 썸여림에서 pp, ff가 포함되지 않은 것 등 교재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각 교재들마다 검은 건반이 먼저 제시되는 이유는 교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검은 건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쇼팽이 주장하는 좋은 손모양의 연습은 E, F#, G#, A#, B 이다. 아동의 손가락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시작하게 되면 4, 5번 손가락으로 진행됨에 따라 손모양이 주저앉을 수 있다. 3번 손가락에 중심을 두고 2, 3, 4번 손가락을 검은 건반에서 연습하는 것이 안정적인 손모양을 만드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접근법 사용이 한정적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6가지 종류의 교재 모두 무보표에서의 음정 접근법과, 리듬읽기 연습부터 시작하고 각각 교재에서 선택한 접근방법을 따른다. 대부분의 교재는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과 수정·절충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높은 음자리 G음, 낮은음자리 F음으로 시작하는 수정·절충 접근법의 한 종류인 이 방법은 높은음자리표가 영어로 G Clef, 낮은음자리표는 F Clef 인 영어에서 파생되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나라의 어린 학습자들이 게이름을 배울 때 G Clef는 G음, F Clef는 F음으

로 음을 기억하기 쉽도록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대부분의 교재에 변형된 가온 다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넷째, 6가지 종류의 교재는 클래식, 동요, 민요, 외국 곡, 캐럴, 구전동요, 바이엘 연습곡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했으나 대부분의 연습곡들은 어린 학습자들이 모르는 곡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을 쉽게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다섯째, 『동그라미 바이엘』을 제외한 5종의 교재는 모두 각 권이 끝날 때 마다 수료증을 제시해 초급 학생의 성취도를 높였다.

여섯째, 교재들 모두 컬러로 된 삽화의 사용으로 흥미를 끌 수 있게 했다. 교재 마다 등장인물을 제시하고, 만화를 넣기도 했다. 대부분 교재에서는 제시한 인물이나 그림을 교재의 연습곡에 통일된 삽화로 사용했고, 제목에 알맞은 그림을 삽입해 상상력을 자극시켰다.

일곱째, 이론적 개념 설명과 연습곡과의 구성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학습과정에서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고 연습곡에서는 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곡들을 수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재들은 연습곡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여덟째, 빠르기말 용어사용에 혼동이 있었다. 몇 종의 교재는 빠르기말을 이태리어로 제시하고 어떤 교재들은 빠르기말을 한국어로 제시해 빠르기말의 음악용어를 원어인 이태리어로 접할 수 없었다.

아홉째, 교재에 구성된 연습곡들 중 기존의 『바이엘』 교재에 수록된 연습곡을 원곡 그대로 다루거나 학습 과정에 알맞게 변형, 편집을 해서 수록했다.

2) 교재별 장·단점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의 장점은 연주를 위한 주석이 교사와 학습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있어 도움을 주며, 연습곡이 모두 40곡미만으로 진도에 부담감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재 1, 2, 3권까지의 학습 난이도는 평이하나 교재 4권에서 갑자기 많은 이론이 제시되면서 연습곡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단점이다.

『포인트 바이엘』은 교재의 이름에 쓰여 있듯 학습과정에서 교재 하단 ‘포인트’란에 주석이 달려있어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내용이 많지 않아서 어린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난이도 면에서 다른 교재들에 비해 쉬운 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도, 학습 능력, 성취도에 따라 적절하게 부교재를 병행해도 좋을 것이다.

『동그라미 바이엘』은 학습내용이 탄탄하고 초급 단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학습내용이 많고 수록곡이 모두 50곡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습과정이 3, 4권으로 넘어가면서 비약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린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고 배우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바이엘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학생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학생이나 청소년기의 학생이 배우기에 더 적당한 교재로 생각된다.

『바이엘 하늘자전거』의 장점은 교재구성에서 삽화와 등장인물의 적절한 사용과 부록교재 사용으로 흥미를 더했다. 또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듀엣 연주곡과 교재의 마지막에 연주회용 곡을 수록해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3권부터는 부록으로 있는 반주법을 응용해 본 교재의 연습곡에서 왼손 반주를 할 수 있게 했다. 단점은 초급 수준의 학습 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했으나 학습곡이 많아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은 곡의 레퍼토리의 구성이 뛰어났다. 동요,

만화주제곡, 게임의 배경음악, 유행가 등 학생들이 알기 쉬운 곡들로 구성되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듀엣 연주가 많이 수록되어있어 학습자의 음악성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많은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지 않고 노래 가사나 연습곡의 제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교재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론적 개념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이론 부교재나 교사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I LOVE 바이엘』은 작사, 작곡을 맡은 저자가 각각 있었다. 또한, 교재에서 피아노 악기에 대한 흥미를 계속 불러일으키도록 글리산도, 페달사용, 여러 음역 대에서 연주를 하게 해 재미를 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음악적 활동은 어린 학습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1권부터 음악이론이 많이 제시된다. 제시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습곡에 접목시켜 일찍부터 학습내용을 익힐 수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내용을 배우는 것은 학습자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교재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라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교재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방향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19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피아노 교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외국 수입 교재와 더불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교재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많은 양질의 국내 교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교재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고 개발되어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질을 성장시키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 실정에 맞는 교재를 찾고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아래 6가지 종류의 교재를 비교 분석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교재에는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으나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교재의 편집 과정에서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고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보였다. 그러나 이론 부교재가 수록되어서 기초 이론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포인트 바이엘』은 ‘포인트’라는 주석으로 연습 방법과 기초 이론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기초 학습에 필요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나 빠르기말을 이태리어인 원어로 배울 수 없으며, 교재의 연습곡이 쉬운 난이도의 연습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쉬운 난이도의 곡은 초급 학습자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는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셋째, 『동그라미 바이엘』의 레퍼토리는 저자의 자작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어린 학습자에게는 연습곡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고 연습곡이 길어짐에 따라 악보가

춤춤하게 나와 있는 것이나 연습곡의 제목이 작게 쓰여 있는 것들을 볼 때 교재의 편집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바이엘 하늘자전거』는 어린 학습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 한 삽화를 교재 네 권에 모두 구성했다. 이 교재는 음악적으로 성장 할 수 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과정을 여러 군데에 배치했으며, 부록 교재를 사용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교재에 수록된 연습곡이 많아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었다.

다섯째,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은 저자의 곡이 레퍼토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존의 『바이엘』 연습곡에 저자가 가사를 붙여 사용하는 등 다른 교재들에 비해 여러 가지 장르의 곡들로 구성해 어린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창, 청음 등 여러 음악 활동을 포함해 음악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석으로 기초 이론 지식이 전혀 설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교재의 사용이나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여섯째, 『I LOVE 바이엘』은 피아노를 활용한 여러 활동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으나, 일찍 부터 많은 기초 이론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내용과 연습곡 순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학습내용의 개념이 나오고 연습곡에 적용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기초 이론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연습곡에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 개념이 제시되어서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게 구성 되었다. 따라서 기초 개념을 먼저 제시한 다음 연습곡에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레퍼토리에 한국적 정서를 담아야 한다. 곡의 구성에 민요가 실려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이 적고 외국곡이나 클래식 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래 동요, 구전 동요, 민요, 민속 리듬 등이 추가 되어 국악을 가깝게 느끼고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현대적 레퍼토리도 수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재에 수록된 연습곡들은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와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의 어린 학습자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O. S. T 혹은 동요 등을 추가해서 아는 노래를 빨리 배우는 어린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음악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해야한다. 청음이나, 시창, 즉흥연주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포함되어 어린학습자의 음악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교수법을 위해 좋은 교재를 위한 연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고, 교사들은 기존에 배워 왔던 교수법이나 교재를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교수법과 교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습자를 위한 연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강희, 이순정, 공누이, 형희전 (2010). 『피아노 교수법 개론』. 서울: 세광음악 출판사
- 김종환 (2004).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 (2014).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범영숙 (2003).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서울: 삼호뮤직.
- 송정이 (2009).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 안미자 (2007).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은석 (2008).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전략』. 서울: 학지사.
- 이은주, 오상은, 홍혜정, 김현영 (2014). 『피아노 지도와 교수이론』. 서울: 교육아카데미.
- 조윤수, 최윤경 (2003).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 서울: 뮤직필
- 전현성 (1998). 『최신 유아 음악교육』. 서울: 태림출판사.
- 찰스 레온하드, 로버트 W.하우스 (2003).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James W. Bastien (2008).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송지혜(역). 서울: 음악춘추사.

2. 논문

- 강선혜 (2003). 아동기 피아노 초급 교재 비교연구 및 사용 실태 조

- 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진 (2015). **피아노교육의 초급교재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바이엘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신지연 (2004). **피아노 초급 교재의 연구: 10개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민희 (2011). **초급교재 비교분석연구: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피아노 어드벤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이호선 (2007). **초급 피아노 교재의 연구: 피아노어드벤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혜정 (2009). **피아노 기초교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교재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민정 (2006). **피아노 조기교육을 위한 기초교재 연구: 바이엘과 알프레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정아 (2004). **피아노 음악교육의 기초교재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복희 (2003). **피아노 기초과정 지도를 위한 교재의 비교 분석 연구: Beyer과 Alfred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3. 교재

- 강금선, 양오경 (2005). 『동그라미 바이엘』. 서울: 음악세계.
- 남주희 (2006).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서울: 세광데이타테크.
- 삼호뮤직 편집부 (2007). 『포인트 바이엘』. 서울: 삼호뮤직.
- 세광음악교육연구회 (2011). 『바이엘 하늘자전거』.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안혁 (2003). 『I LOVE 바이엘』. 서울: 태림출판사.

일신음악연구회 (2010). 『세바퀴 프라임 뉴 바이엘』. 서울: 일신서
적출판사.

4. 간행물

김강희 (1998). 초보피아노 교재의 어제와 오늘. 『피아노 음악』. 5월호.

ABSTRACT

A Comparative and analytic Study of Piano Methods for Beginners made in South Korea

Yeon Ji, Park

Department of Music

Instrumental Music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Music is such a one part of our lives, a social communication tool and, by extension, art increasing the value of human.” Music education is considered as whole-person education, a piano is chosen as the first choice. We can make melodies and harmonies with a piano, a beautiful instrument, it can be encompassed with all the music and it is most popular and most accessible. For beginners, piano education helps them stimulate their brains, makes using their bodies properly and develops their sensibilities and artistic values. But it’s so hard to study a piano single-handed so the beginners need help from teachers. If professional piano teacher choose the right teaching materials, it can maximize learning effects and affect more effective instruction for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choices of textbooks for piano teachers by looking for characteristics of lots of beginning textbooks compared and analyzed. We selected 'Saebaqwi(meaning: Three wheel prime new Beyer' of Ilsinbook, 'Point Beyer' of Samho Music, 'Dongeurami(meaning: Circle) Beyer' of Eumaksekye, 'Beyer Haneul Jajeongeo(meaning: Flying bike)' of Sekwang Music, 'Juhee Nam's exciting Beyer' of Sekwang Data Tech, 'I love Beyer' of Taerim publishing company and they are independently made in South Korea. We divided sets of technique, tune, tonality, meter, phonetic value, modifiers and directives, and arranged strengths, weaknesses and characteristics that the beginners have to learn in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courses. Analysis showed that 'Saebaqwi prime new Beyer' is commented on most frequently and the comments help the students study techniques and basic theories. But there are too many songs each book and the level of difficulty rapidly increased so it could put the pressure on students. Like its name, 'Point Beyer' helps performance of students with the comments named 'points', but the book has a low level of difficulty comparing with other books. 'Dongeurami Beyer' is substantial when the students take the beginner's course but the difficulty level of etudes is so high and there are a lot of songs. 'Beyer Haneul Jajeongeo' has lots of illustrations and drawings that attract the young students' interests and helps the students learn theories and accompaniments with a supplement but students can be slow in learning because of so many songs. 'Juhee Nam's exciting Beyer' has various repertoires that the young beginners are interested by the book but if

they don't check carefully, they can't study basic theories because it has theories with the name and lyrics of etudes without comments. 'I love Beyer' is interest to the students with pedal, glissando, use of a wide range, clapping, singing and so on. But it can be a burden for students because it has a lot of basic theories so early.

Each book has the right content that students have to study in the beginner courses and they have each characteristic so the teachers have to choose the books with their learning goals.